21세기 태양

4

철학의 대가



6.15주간 편집부



철학의 대가

6.15주간 편집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

≪나는 우리 나라에 **김정일**동지와 같이 권위있는 철학가, 리론가가 있는데 대하여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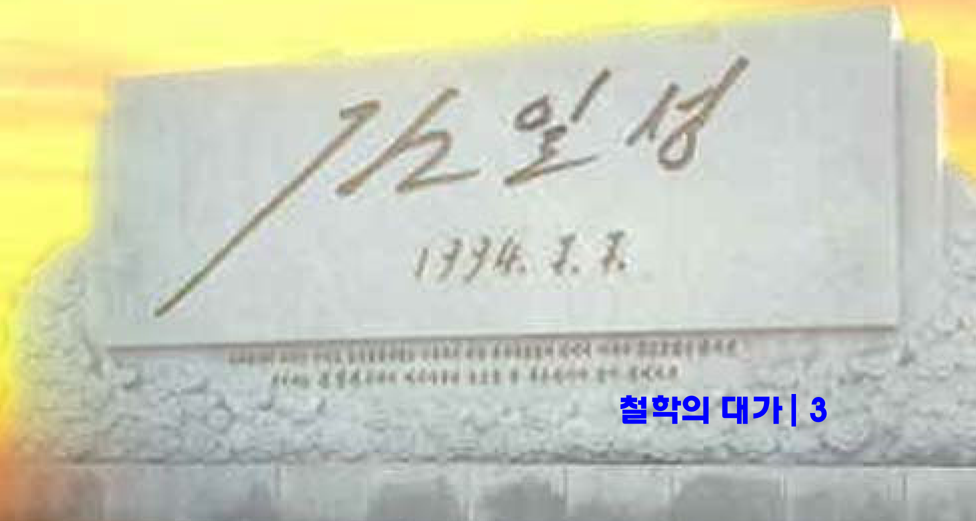
김일성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력사가 낳은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한 인간이 모든 지성과 재능을 최고봉의 경지에서 겸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동지는 비상한 탐구력과 정력을 가지고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성



용남산의 맹세

시 ≪조선아 너를 빛내리≫

해 솟는 용남산 마루에 서니
삼천리 강산이 가슴에 안겨온다
이 땅에서 수령님 높은 뜻 배워
조선혁명 책임진 주인이 되리
아 조선아 너를 빛내리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리
사나운 풍랑도 폭풍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
아 조선아 너를 떨치리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햇빛으로 이어가리라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
아 조선아 나의 조선아

이 시의 셋째 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에 첫 발자국을 옮기시던 그때 위대한 주체사상의 세계사적 승리를 가져오실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셨습니다. 이 련에 있는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공산주의 그 날을 앞당겨오리라≫는 표현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체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시려는 그이의 원대한 구상 속에는 언제나 주체사상의 발원지, 주체의 조국인 조선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에서 주체사상이 빛을 뿌리게 하고 그 빛발로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쳐 나가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드팀없는 신념입니다. 조선을 통해서 세계를 보시고 조선혁명의 승리를 통해서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시려는 것은 어리신 시절부터 간직하신 그분의 의지입니다.

(**김일성**방송대학 강좌 ≪**김정일**장군님의 대학시절≫에서 발췌)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71(1982)년 3월 31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한 결론
주체63(1974)년 2월 19일

우리는 이번에 15일간에 걸쳐 전국당선전일군강습을 가졌으며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취급되였습니다.

선전선동부로서는 이때까지 이러한 강습을 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습제강을 인쇄하여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였는데 강습제강을 주는 것은 낡은 방법입니다.

강습제강을 주게 되면 제강에만 매달려 강습받은데 기초하여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나가겠는가에 대하여 머리를 쓰지 않게 됩니다.

강습에서 당사상사업 방향과 방침을 주었으면 응당 그에 기초하여 자기 머리로 궁리하고 짜내여 도면 도, 군이면 군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강습제강대로만 하자고 하니 그것이 벌써 틀에 박힌 형식주의입니다.

강습제강을 주게 되면 또 아무런 연구가 없이 제강을 하나에서부터 마지막점을 찍는 것까지 그대로 아래에 내려보내서 나중에는 리당비서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선전일군은 중간전달자가 되고 진짜 선전일군을 리당비서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제강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만든 제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강습에서 받은 기본사상에 근거하여 자체로 제강을 만들어 아래에 침투시켜야 합니다.

오늘 나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와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1. 우리 당 사상사업의 기본임무에 대하여

현시기 우리 당 사상사업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 사상사업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또 모든 사상사업은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데 철두철미 복종되어야합니다.

우리 당 사상사업은 시종일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중심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여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자!≫

이것은 현단계에서 당이 내세운 전투적 구호입니다.

당의 이 구호에 대하여 지금 내가 내놓은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의 제의에 의해서나 발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에서 그리고 당이 처한 모든 주객관적 조건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김일성**주의를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말하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한다는 것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다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것은 우선 이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 뚜렷이 밝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최종목적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 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완전하게 해명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위

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이론, 정신도덕적 풍모를 담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또한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 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일성**주의는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혁명사상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공산주의사회는 **김일성**주의에 기초하고 **김일성**주의가 완전히 구현된 사회라고 말할 수있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당의 최고강령으로 되는 것은 또한 이 전투적 구호에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혁명은 **김일성**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김일성**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 노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는 바로 우리 시대의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편향없이 곧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며 전략전술입니다.

그러므로 **김일성**주의를 지침으로 삼고 투쟁하며 **김일성**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공산주의건설을 곧바른 길을 따라 성과있게 추진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김일성**주의화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주의화, 이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새로운 방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에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강령으로 들어야 할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도 수령님에 의하여 마련되었고 우리 당의 창건도 수령님에 의하여 실현되었으며 우리 당이 다름아닌 수령님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고 수령님의 사상을 신봉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로 조직된 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1945년 10월 10일에 창건되었는데 왜 오늘에 와서야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강령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곡절많은 우리 당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건후 우리 당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은 풍파와 시련이 겹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당이 창건될때 우리 당안에는 검열된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국내외에 있던 여러 공산주의그루빠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각이한 유파의 사람들을 널리 포섭하고 하나로 묶어세우려고 모든 것을 다하시였습니다. 그러나 종파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 교조주의자들은 당에 속을 주지 않고 딴꿈을 꾸면서 고질적인 악습을 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자들은 교묘하게 정체를 숨기고 양봉음위하면서 어려운 시기마다 당과 혁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당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종파의 오물과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극복하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투쟁에 의하여 물론 반당종파분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조직사상적으로 분쇄되었으나 이자들은 지난날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잠입해왔으면서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자기의 역사를 개척해온 우리 당은 창건된지 30년이 가까이 되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이 창건 첫날부터 **김일성**주의화를 자기의 강령으로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이제부터라도 백지상태에서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자는 것을 새롭게 결심하고 이 전투적 구호를 든 것입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김일성**주의화가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론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 **김일성**주의화는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영도하여오신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었고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되었으며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건설을 영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는 그 어떤 새로운 방침이 아니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여 오신 우리 혁명위업의 계속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구호는 당시에 들지 못하였던 것을 오늘의 조건에서 다시 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오늘 제기하는 **김일성**주의화의 구호가 아무런 새로운 내용도 담지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고 있은 **김일성**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입니다. 이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주의의 기치따라 공산주의에로 이끌어가자는 것이며 **김일성**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당의 최종목적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바로 **김일성**주의화과정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일성**주의화의 구호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로는 제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오늘에 와서 비로소 성숙된 문제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당이 새로운 구호나 새로운 전략을 제기하려고 하면 주객관적 조건과 요구가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구호를 제기하고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위대한 사상, 혁명과 건설의 올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상의 일색화가 사회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어야 하며 또한 사상의 일색화를 받아들일수 있는 대중의 높은 각오와 준비된 정치적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당의 경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사상, **김일성**주의가 우리 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 이 위대한 지도사상을 가진 것은 사상의 일색화를 당의 구호로 제기할 수 있는 결정적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김일성**주의와 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혁명은 일찍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에 의하여 자기의 앞길을 독창적으로 개척하여왔습니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우리는 그때에 벌써 자기의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매 단계의 혁명이론을 과학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누구도 걸어본적이 없는 생소한 길을 헤치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면서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빛나는 승리에로 전진시켜왔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혁명실천의 역사적 경험을 분석총화하시고 우리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이론을 독창적으로 완성하시었습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공산주의혁명이론에 의하여 우리 당과 인민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역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며 전면적으로 완성해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이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지도사상은 위대한 **김일성**주의 밖에는 더는 없다고 우리는 서슴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맑스주의, 특히 레닌주의를 세계의 모든 당들이 다 받아물어야 할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맑스주의, 레닌주의는 물론 변함없이 노동계급의 귀중한 혁명이론이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진수를 고수하며 그 일반적 원리를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혁명실천에서 의연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론은 어디까지나 100년전, 50년전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내놓은 것들인 것만큼 오늘의 새로운 역사적 시대,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있는 우리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에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하여 과학이론적으로 밝히는 우리 시대의 이 역사적 과제는 오직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해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역사적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역사의 새시대입니다.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역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입니다.

김일성주의는 완성된 공산주의혁명이론입니다.

맑스는 자본주의운동법칙을 발견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

고단계인 제국주의의 역사적 지위를 밝히고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과학적 공산주의이론의 창시에서 중요한 역사적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맑스나 레닌이 내놓은 공산주의이론은 그들자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또 그들이 처하였던 시대적, 역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매우 윤곽적이고 단편적인 것이며 적지 않게 예측과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공산주의혁명이론은 **김일성**주의에 의하여 비로소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체계화되였으며 전일적인 완벽한 과학적 이론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 인민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혁명이론을 따르고 신봉하며 **김일성**주의를 자기의 사상과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삼고 있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노동계급과 인민들은 오직 **김일성**주의가 가르치는대로만 하면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모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은 우리 당이 오늘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운 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의 구호나 당의 방침은 사회경제적 조건, 물질적 조건의 성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가 갖추어져야만 당의 구호는 빈 구호로 되지 않고 실제로 생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는 우리 사회발전의 완전히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상이 전사회적 규모에서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공산주의자들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하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적대적 계급사회에서도 매개 계급은 자기 계급의 사상을 전사회적 사상으로 만들려고 애는 씁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계급도 이것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인민대중이 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공통된 목적과 지향밑에 투쟁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이 온 사회를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 요구로 될뿐 아니라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제도가 이미 섰을 뿐 아니라 공업화가 실현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 나라 조건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것은 완전히 성숙된 요구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도 튼튼히 마련되여 있습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의 참모부로서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되었으며 그 위력은 비상히 강합니다.

우리 당은 **김일성**주의의 길을 따라 사회와 인간을 적극적으로 개조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생기발랄한 전투적 당, 위력있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더욱 세련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당은 오늘 세계적으로 공인된 가장 권위있는 혁명적 당입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오직 수령님의 사상대로만 숨쉬고 살며 싸우려는 혁명적 입장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확고히 섰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전체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통일단결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새시대를 개척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투쟁의 진두에 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신심과 투지와 용기에 넘쳐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싸워나가는 우리 나라에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주객관적 조건과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할데 대한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는 현시기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며 가장 책임적이고 숭고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이 역사적 위업수행에 우리 당의 모든 힘을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은 그 첫째가는 담당자로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는 사업은 우리가 처음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지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서는 여러 가지 부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상사업을 하는 우리 선전일군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당의 항구적인 강령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대를 이어 **김일성**주의를 고수하고 영원히 빛내일 수 있게끔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주체71(1982)년 3월 31일

우리는 멀지않아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령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기간 우리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면서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대중 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었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기치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하게 된 신념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전국의 사회과학자들과 이론선전일군들이 모여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토론하는 이 기회에 주체사상의 원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창시

진보적 사상은 사회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민대중은 진보적 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 사상이라고 하여 사회역사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다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며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에 따라 그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노동계급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상의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사조들은 그 역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불러 일으켜 사회역사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됩니다.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투쟁무대에 등장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추동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로 넘어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

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역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옵니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였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으며 저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약탈과 폭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오랫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해온 인민대중이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혁명운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나라 노동계급이나 인민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입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혁명역량도 인민대중 속에서 키워내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도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이탈되어 영도권싸움과 말공부만 하고 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 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이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며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

매개나라에서 혁명은 주인인 그 나라 인민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주체시대를 개척한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혁명은 강대한 일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었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 보려고 망상하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각기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을 받으러 다녔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투쟁의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이론을 자기나라혁명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시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던 혼란 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염원,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보시고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어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기간의 투쟁 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여러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었으며 이를 일반화하시어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50여 성상 간고한 조선혁명 의 앞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역사는 위대한 혁명실천 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시켜오신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요구와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나은 것으로 하여 우리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었습니다.

2.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사람위주의 철학적 원리 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히시었습니다.

사람도 물론 물질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이며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입니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벗어 나올 때 벌써 특출한 존재로 등장하였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다른 물질은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순응함으로써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하여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듦으로써 생존하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룬다는 것을 밝히심으로써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주시었습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입니다. 세계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는 것은 오직 사람 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으로만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며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갑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오직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만 고유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주성으로 하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집니다. 육체적 생명이 생물유기체로서의 사람의 생명이라면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존재,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창조성은 목적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으로 하여 사람은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더욱더 쓸모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갑니다.

창조성은 자주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이룹니다. 자주성이 주로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로 표현된다면 창조성은 주로 세계의 개조자로서의 사람의 역할로 표현됩니다.

사람은 의식성을 가진 존재, 의식적인 사회적 존재입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해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와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의식성에 의하여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자주성, 창조성이 담보되며 그 합목적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이 보장됩니다.

결국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세계에 숙명적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으로,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하고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하게 됩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곧 세계에서 유일한 지배자이며 유일한 개조자입니다,

사람은 물론 세계를 떠나서 살 수 없으며 세계 가운데서 살며 활동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노동대상이고 인간생활의 물질적 원천이며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입니다. 자연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은 사람들의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환경이 좋은가 나쁜가, 특히 사회의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진보적인가 반동적인가 하는데 따라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질 수도 있고 그것이 제약되고 구속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그저 순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그에 맞게 개변하며 낡고 반동적인 것은 새롭고 진보적인 것으로 바꾸면서 자연과 사회를 끊임없이 개조해 나갑니다. 이것이 세계를 더욱더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세계로 개조하고 변혁해 나가는 사람의 활동이며 투쟁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물질의 운동에 의하여 변화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세계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밝혔습니다. 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은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이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사람이며 세계에는 사람의 이익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물은 오직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한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올바른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한다는 것은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이며 사람만이 세계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개조를 요구하며 세계의 개조를 실현하는 것도 다름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객관적 법칙을 이용하여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하여 나갑니다. 세계는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서만 사람을 위한 세계로 개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은 관점과 입장으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입장은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인 관점과 입장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주체의 세계관은 우리시대의 가장 올바른 세계관입니다.

역사가 전진함에 따라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에 와서 인민대중은 세계의 참다운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세계는 더욱 더 인민대중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

5. 주체사상의 역사적 의의

주체사상은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혁명적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시대의 역사적 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있으며 역사의 전진을 더불어 그 견인력과 변혁적 의의는 더욱더 커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을 밝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사상발전과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역사적 공헌입니다.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 사람들의 관점과 입장은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하여 왔습니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역사였습니다. 맑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유물론과 변증법의 승리를 확정하였습니다. 맑스주의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의 출현은 당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였습니다. 일찍이 노동계급이 역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인류역사에는 새시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을 반대하는 혁명의 서막이 오른 새로운 역사적 조건은 투쟁에 일떠선 노동계급에게 자본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의 필연성을 깨우쳐주는 혁명사상을 절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전면에 나선 문제는 반동적인 자본의 지배를 신성화하고 그 영원성을 설교하는데 복무하여온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타파하고 노동계급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밝혀주는 것이였습니다.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은 바로 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왔습니다.

시대의 발전은 세계관의 발전을 동반합니다. 노동계급의 진출과 함께 개시된 혁명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이제까지 역사의 대상으로 되어온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역량으로 등장한 새시대는 그들이 자기운명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역사적 과제는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새시대의 세계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그 초석을 이루는 철학적 원리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것입니다.

종래에는 물질과 의식, 존재와 사유의 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았습니다. 물질의 일차성, 존재의 일차성에 관한 맑스주의 유물론적 원리는 이 문제에 과학적 해명을 주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주었습니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문제는 선행철학들에서도 수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대부분 그것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 순수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맑스주의에 의하여 사회적 관계속에서 제기되고 해명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속에서 보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인간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해명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이 사회적 인간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천명한 것은 세계관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철학적 발견으로 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 다시 말하여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의 개조자, 자기운명의 개척자라는 사상은 관념론이나 형이상학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됩니다. 관념론이 세계와 사람의 운명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된다면 형이상학은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며 따라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숙명론에 귀착됩니다. 사람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부인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입장을 전제로 합니다.

주체사상은 물질세계발전의 최고산물인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원리를 독창적으로 정식화함으로써 세계관의 초석을 새롭게 밝혔습니다.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세계관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역사상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세계관이 있었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힌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를 관념이나 정신의 세계로 보는 관념론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시기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본 유물론자들도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세계의 한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종래와는 달리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와 그 변화발전에 대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 주체의 관점과 입장은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식활동, 실천활동을 보장하는 확고한 담보로 됩니다.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관점과 입장을 밝힌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혁신하였습니다. 맑스주의 이전에는 유물론이나 변증법을 제창한 사람들도 사회역사에 대해서는 관념론적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맑스주의는 사회도 자연과 같이 물질세계에 속하며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따라 변화발전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회역사에 대한 관념론적 견해를 타파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역사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노동계급의 사회역사관을 완성하는 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역사원리는 주체사관의 기본내용을 이룹니다. 이것은 주체의 운동인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됩니다.

주체사상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 사회역사관을 밝힌 주체사상은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맑스주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수면서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놓았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류의 해방위업에 이바지한 주체사상의 역사적 공헌이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이 출현한 후 오랜 세월이 흘렀으며 혁명운동은 멀리 전진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혁명실천은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혁명이론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내놓음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혁명이론을 새롭게 밝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주체시대의 혁명이론을 전개하기 위한 올바른 기초입니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주체시대의 혁명운동의 요구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력에 의하여 혁명투쟁이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에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여야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올바로 해명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론을 전면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이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이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이론을 전개하는 것은 혁명운동의 본성에 맞게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는 확고한 담보입니다.

모든 혁명운동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 것만큼 혁명이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이론의 가치가 규정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전략전술의 위력이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이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옳게 발양시키는 이론과 전략전술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을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하는 가장 위력한 혁명이론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선행한 혁명이론에 올바로 대할 수 있게

하는 지침으로도 됩니다. 노동계급의 선행한 혁명이론은 오늘과 다른 시대적 조건과 과업을 전제로 하여 나왔지만 계급적 이념과 사명에 있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이론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기성이론과 경험에 창조적으로 대하는 원칙을 제기함으로서 선행혁명이론을 우리시대의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그것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혁명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계급투쟁을 부인하는 수정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기회주의를 정확히 가려보고 극복하며 노동계급의 혁명이론에서 계급적 원칙과 계속혁명의 정신을 확고히 고수해 나갈 수 있게 합니다.

주체의 혁명이론은 주체시대 노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이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더불어 영원히 승리하는 불멸의 공산주의혁명이론입니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습니다.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적 운동, 혁명운동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천명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커다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에 빛나게 구현되어 위대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이며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진함으로써 조선혁명은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간고한 투쟁의 앞길을 승리적으로 헤쳐올 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남들이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가장 곧바르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을 개척한 혁명이며 사회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 놓은 혁명입니다. 조선혁명은 세상사람들이 ≪사회주의의 모범≫이라고 말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새생활을 창조한 혁명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생소한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혁명입니다. 주체사상이 앞길을 밝혀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가까운 길로 전진하여 짧은 기간에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세계를 경탄시키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에서 엄연한 현실로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창조물들은 주체사상의 고귀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업적에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역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인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우리시대 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새로운 혁명의 길,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혁명운동이 민족국가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시대는 매개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옳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상의 영향이 있는 조건에서 이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됩니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밝혀줌으로써 매개나라 인민들이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나라 실정에 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체의 창조력을 동원하여 혁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각이한 역사적 조건과 발전단계에 있는 인민들이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길, 국제관계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공산주의운동은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없애고 자기운명의 참된 주인이 되기 위한 매개나라 당과 인민의 자주적인 운동이며 따라서 여기에는 그 어떤 상하관계나 주종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고 그들 사이에 지배와 예속, 명령과 복종 관계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당들 사이, 국가들 사이의 관계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움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국제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자주성의 원칙은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담보하며 공산당, 노동당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확고한 원칙으로서 더욱더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도 국제관계발전의 공인된 원칙으로, 예속과 불평등을 강요하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체사상은 새 세계를 창조하며 자기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불멸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 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주체사

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투쟁해 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사상의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주체사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서 과학이론사업이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선전을 앞세워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과학이론일군들은 자기의 무거운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선전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부문에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사상이론에 대한 연구를 폭넓게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적 원칙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사상이론들을 전면적으로 연구하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혁명실천에서 간절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옳은 과학이론적 해답을 주어야 합니다. 사회과학부문 일군들은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본을 두고 주체사상연구를 심화시킴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이론적으로 올바로 해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토대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연구성과물로 풍부히 하여 나가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기관은 주체사상교육의 전당이며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은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사상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을 고등중학교를 나올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대학을 나올 때에는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일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특히 대학들에서 주체의 사상이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교육교양과 전문분야의 지식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옳게 결합하여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과학학부들에서 학생들에게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똑바로 세워주는 한편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 소유한 전문가들을 훌륭히 양성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이론선전은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입니다.

주체사상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한 귀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입니다.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가 되자면 누구나 다 주체사상을 깊이 학습하여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언제나 주체의 사상이론을 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 일군들과 출판보도 일군들은 주체의 사상이론을 깊이있게 해설한 품위있는 책과 글들을 많이 써내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분야에서 반동적 부르조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며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이론일군들은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적대적 사상들의 반동적 본질과 해독성을 예리하게 폭로하며 조그마한 비계급적, 비혁명적 사상요소도 우리내부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과학이론일군들은 부르조아사상과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온갖 반동들과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수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학이론일군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철석같은 신념으로 삼고 모든 과학이론활동을 주체의 사상이론을 연구선전하고 옹호관철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하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선전하여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선진사상의 소유자이며 전파자인 사회과학자들과 이론일군들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나는 우리 당의 과학이론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명심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에 훌륭히 이바지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2월의 선언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자리매김해야 할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자주시대의 향도리념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시대의 향도리념으로 선포하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력사적 근원에서부터 그 리론적 내용과 구조적체계에 이르기까지 사상리론전반에 걸친 심층적인 분석과 완벽한 습득을 성취한 수령의 걸출한 후계자만이 실행할 수 있는 대업이다. 맑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집대성하고 정식화했던 엥겔스와 쓰딸린의 공적이 그들이 이루어낸 특기할 사상리론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 사변이였으며 불후의 리정표이다.

1974년 2월 19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사변적 의미를 지닌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때로 말하면 2월초순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민중의 일치된 념원과 의사에 따라 **김정일**령도자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추대한 직후여서 사람들의 이목이 모두 그분에게 쏠리고 있었다. 수령님에 의해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할 대업을 맡으신 그분이 당과 혁명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어떤 새로운 정치강령을 내놓으실것인가 하는 민중의 기대는 참으로 컸다. 하지만 당시의 시점에서 그분의 정치적 구상을 정확히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그분의 사색과 구상은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초월하는 웅대한 것이였다.

바로 이런 때인 1974년 2월 평양에서는 그분의 발기와 지도밑에 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가 두주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강습을 마감하는 2월 19일 오후, 영명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 강습회장에 나가시여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중대 결론을 하시였다. 그것은 후계 수령으로 추대되신 후 전당, 전국, 전민을 향해 발표하신 첫 정책대강이였다. 바로 이 력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이 선포되였던 것이다.

오늘 이북민중과 세계 진보적 민중들이 현대정치사업에 하나의 획선을 긋고 기념비적 리정표를 세운 력사적 사변으로 일컫는 ≪2월의 선언≫은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신 불멸의 업적을 두고 사람들은 탁월한 예지가 낳은 사상리론의 금자탑이라고 격찬하고 있다. 그러나 그분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를 그저 비범한 예지의 소산으로만 인식한다면 그것은 일면적인 리해라 할 것이다.

력사적인 ≪2월의 선언≫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와 선포, 여기에는 근 10년 세월을 두고 사색과 탐구를 계속하면서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일**령도자의 불면불휴의

로고가 깃들어 있다.

그분은 1964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무를 시작하신 첫시기부터 맑스-레닌주의의 력사적 공적과 한계성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그 사상사적 지위를 밝히기 위한 방대한 학술연구사업을 진행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를 위해 선행고전가들이 전생애를 두고 저술한 저서들을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였다.

≪…나는 1966년 5월부터 1969년 7월까지 한 3년반동안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를 전면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재평가하였습니다.

내가 분석평가한 맑스와 엥겔스, 레닌의 중요저서는 맑스의 ≪자본론≫ 5개 분책을 한권으로 계산하여 모두 31권입니다.

나는 그때 맑스와 엥겔스, 레닌이 쓴 철학저서와 경제학저서를 비롯한 거의 모든 중요저서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간단한 표현을 놓고도 며칠동안 생각하였으며 어떤 표현은 몇 달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감회깊이 회고하신 3년간의 집중적인 학술연구기간은 결코 안온한 서재에서 고전들을 탐독하는 그런 안이한 나날이 아니였다. 이 기간 그분께서는 항상 휴식을 뒤로 미루고 쌓이고 쌓인 피로를 쪽잠으로 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분망한 속에서 많은 시간과 정력의 소모를 요하는 로동계급의 1백년 사상사를 전면적으로 분석평가하셨던 것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3년간의 연구를 끝마친 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선포할 사색과 탐구를 중단없이 계속하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무포의 낚시터≫에 대한 이야기는 모처럼 마련된 휴식의 짧은 시간마저 위대한 수령님으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한 사색과 탐구에 바치신 그분의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에 대해 전하는 감명깊은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1971년 가을 백두산지구의 혁명적 적지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어느날 측근일군들의 간청에 못이겨 그분은 두만강상류에 위치한 유서깊은 전적지 무포에서 강물에 낚시줄을 드리우시였다. 그런데 한 수원이 미끼통을 들고 조심히 다가가보니 고기가 미끼를 연방 물어채고 있는데도 그분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는 듯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다. 그가 곁에까지 가까이 가서야 그분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들이 말하던대로 무포의 경치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드리우고 앉아있으니 막혔던 생각이 확 트입니다.…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그 어느 고전에도 비기지 못할 폭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가 영원히 심장속에 간직해야 할 불멸의 영웅서사시입니다.≫

그 어떤 위대한 것의 탄생이 예감되는 순간이였다.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만주의 올기강에서 낚시질을 하시면서 항일의 전국을전환시킬 대략, 백두산일대에서의 대부대선회작전을 무르익히시였듯이 력사의

전환은 낚시터에서 이루어지는 듯 싶었다.

이에 앞서 1970년 5월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류사상사에서의 **김일성**주의의 위상에 관해 하신 뜻깊은 말씀은 수년간에 걸친 그분의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에 대한 총결론이였다.

≪**김일성**주의는 현대의 기본사조이다. 선행사조와는 틀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체철학에 기초하고 있는 **김일성**주의는 수천년동안 인류의 예지가 도달한 과학리론의 총화나 집대성보다 더 높은 혁명사상의 최고봉이며 우리시대의 유일한 시대적 지도사상이다. **김일성**주의는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고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주체의 혁명학설이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세계를 포괄하고 있다.≫

이같은 인류사상 최상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그 사상사적지위를 규정하는데서 최대의 완벽성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로부터 그분은 새롭게 도출해내신 원리와 명제 하나를 놓고도 그 사상에서는 물론 표현에 이르기까지 사소한 하자도 없도록 탁마의 공을 기울여 다듬고 또 다듬으시였다.

그분의 심혈을 기울인 노력이 있었기에 마침내 심원한 사상과 리론을 짧은 문장속에 압축한 주옥같은 명제들로 엮어진 불멸의 명저≪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가 집필되여 발표되게 되였던것이다.

경애한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 저작에서 **김일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였다.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온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1페지)

이 간명한 명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내용, 그 구성과 결합방식을 함축해 체계화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 위대한 사상이 선행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본질적특징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정식화에는 **김일성**주의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구성체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민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민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 그리고 민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리론적결정체가 담겨져있다. 이 정식화는 또한 **김일성**주의가 그 기초원리와 구성체계, 내용에서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며 지도사상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최고봉의 혁명학설이라는 리해를 준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말속에 많은 사상을 담는다.≫는 어빙의 말과 ≪글쓰기의 기교는 곧 함축하는 기술≫이라고 표현한 체흡의 말이 오늘까지 하나의 명언으로 전해오듯이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창의력과 저술능력을 소유한 탁월한 사상리론가가 아니고서는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면서도 심오한 뜻을 내포하고있는 혁명의 지도사상을 그와 같이 고도로 함축해 정식화할수 없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시대의 본질적 특징에 관한 새로운 주체적해명이였다.

사람들은 현시대의 의미를 종전의 시대적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

서도 이 격동적인 시대의 본질적 특징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견해를 내놓지 못하였다. 그분께서는 시대발전의 기본흐름을 주체적 시각에서 새롭게 파악하신데 기초하여 지난 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우리 시대의 거창한 의미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입니다.

우리시대, 주체시대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한 력사의 새시대입니다.

주체시대는 또한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우와 같은 책, 10~11페지)

흔히 사상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상은 시대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시대적요청에 부응하여 출현한 선진사상, 향도리념은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기본사조로서 사회력사발전을 이끌고나가는 선도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장구한 세월의 년륜을 새기며 흘러온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은 사상이 시대를 낳고 선진사상의 향도적 역할에 의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여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력사의 새시대는 위대한 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진전한다. 오늘 인류가 살고있는 우리 시대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주체사상의 광망아래 주체의 궤도따라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 시대가 지나간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은 지난날 력사의 뒤안길에 밀려나 력사의 대상으로 소외당하던 민중이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에 맞게 력사를 창조하고 자기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 있다. 이것은 민중의 지위가 력사의 대상으로부터 력사의 주인으로 격상되고 소수 특권적지배계급의 강요에 의해 력사를 창조해오던 민중의 피동적, 수동적 역할이 시대의 중심에서 력사발전을 주도하는 능동적, 주동적 역할로 전환되였음을 말한다.

이와 같이 민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임을 자각하도록 각성시켜 그들이 력사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하고 력사발전을 주도해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시대의 향도사상이 다름아닌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인류사상사에는 수많은 사상조류가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주체사상처럼 영광찬 새시대의 탄생을 가져오고 인류의 사상정신생활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상은 일찍이 없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이렇듯 선행시대와 구별되는 우리시대의 특징을 명철하게 규명하신데 기초하여 **김일성**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현시대와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확증하신 것이다. 새시대의 특징과 새로운 혁명사상 사이의 변증법적련관에 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야 말로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향도리념으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신 여기에 그분의 거대한 리론적공적이 있다.

참으로 ≪2월의 선언≫은 인류의 사상리론발전과 해방위업 수행에서 전환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2월의 선언은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의 진로를 밝혀주는 휘황한 리정표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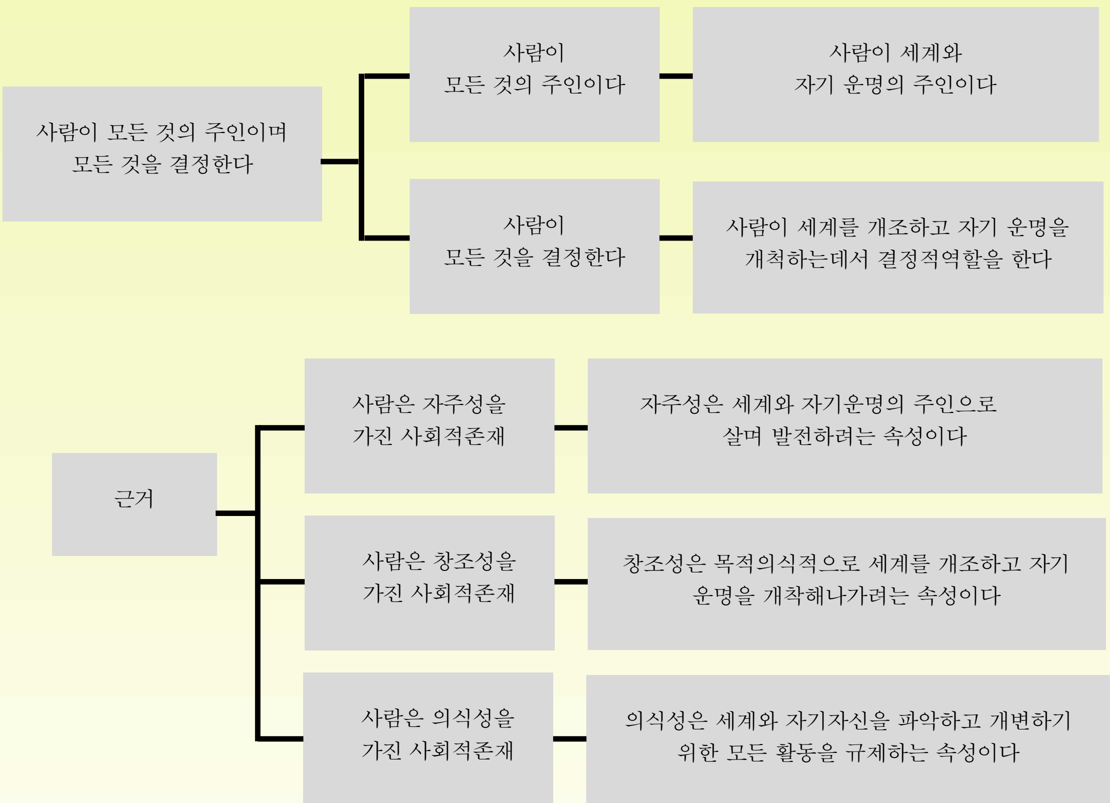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심화발전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켜 자주시대의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사상으로 확고히 전화시키시였다.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 주체위업의 걸출한 령수로서의 그분의 위대성이 빛나고 있다.

주체사상을 종합, 체계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과학성, 위대성을 밝히고 그 력사적지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문제와 나아가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중대한 사업이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민중의 자주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업이다. 따라서 수령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수령의 위업의 승리적진전과 완성에 관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저술한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을 읽어보면 그분께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리론적내용과 틀에서 얼마나 크게 발전풍부화하시였는가를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부표 1≫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이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의 세사지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시대의 향도사상은 세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변혁하기 위한 무기로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 수 있는 철학적세계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시대의 향도사상이 력사를 개척하고 사회를 변혁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려면 력사의 주체인 민중을 중심으로 사회력사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향도리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혁명의 주인인 민중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어야 한다.

주체사상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 지도적원칙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되여있다.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는 지도적원칙의 원리적전제로 되며 지도적원칙은 철학적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주체사상의 구성부분과 그 상호련관성이 과학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유물변증법과 력사적유물론으로 골격이 세워진 맑스주의철학과 획분되는 주체사상의 독창성이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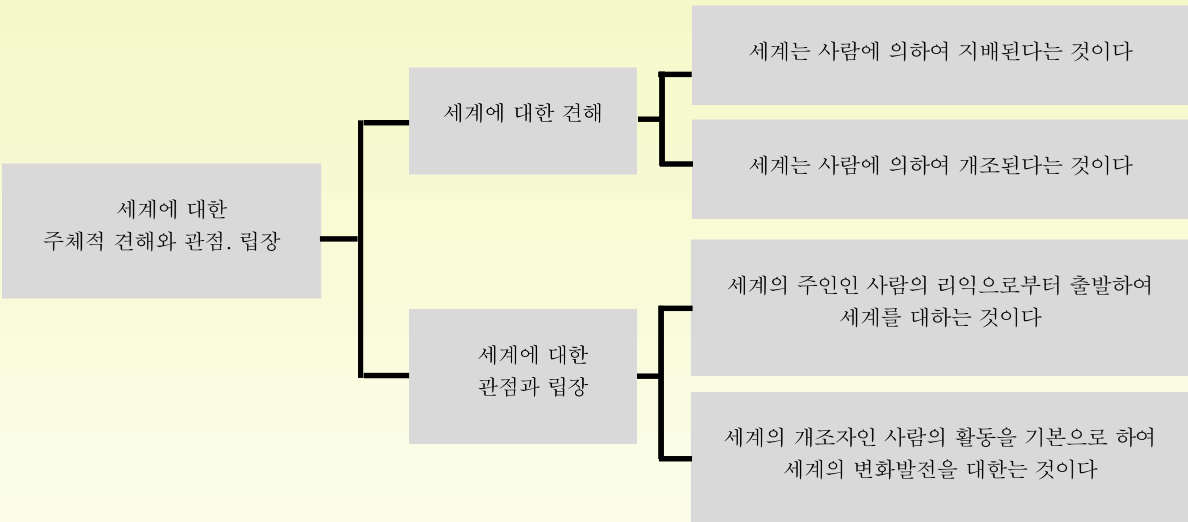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그 내용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체사상의 중심차원은 ≪사람중심≫이라는 점이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강조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9페지)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철학으로 규정한 이 명제에 주체사상의 창시 이전시기를 인류사상의 전사(前史)로 획분하는 근거가 있으며 주체철학이 선행한 모든 철학과 구별되는 근본특징이 밝혀져있다.

따라서 ≪사람중심≫이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고 그 의미를 정확히 리해하는 것은 주체사상을 올바로 인식하는데서 전제적인, 출발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에서는 ≪사람중심≫의 함축된 의미를 기본적으로 세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는 철학의 사명의 각도에서 그것이 인간의 운명개척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는 것이며, 둘째로 철학적고찰에서 인간을 중심에 놓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



≪부표 2≫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터 주체철학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되였다는 것이 셋째 의미이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 학문으로서 그 본성상 인간의 운명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당연히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세워야 한다.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느냐에 따라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맑스주의철학은 자연과 함께 사회도 유물론적으로 해석하고 사람이 환경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환경자체를 변혁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줄수 있는 전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쳤다.

인간운명개척의 완전한 해답은 주체철학에 의해 비로소 주어진다. 주체철학은 인간을 단순한 물질세계의 한부분으로 보고 세계의 존재와 운동과정자체에 관한 설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힌데 토대하여 인간을 세계의 주인,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높이 세운다. 그리고 인간이 주동적으로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개조변혁해나가는 과정의 합법칙성과 거기에서 견지해야 할 관점과 립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철학이 지난 시기의 모든 철학의 일면성과 한계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과학적인 해명을 주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철학의 절대적 우월성이 있고 주체철학을 발전완성시키신 탁월한 철인으로서 **김정일**령도자의 위대성이 있다고 본다.

이어서 철학적방법문제 즉 주체철학이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철학적방법문제 에 의거한다는 점에서 주체사상은 인간중심의 철학으로 근거지어진다.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는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철학문제를 평가하고 해명한다는것이며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는 주인이 되려는 사람의 립장에서 세계를 고찰하고 세계관을 세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주체사상에 의해 최초로 정립된 독창적인 철학적방법이다.

지난 시기 허다한 관념론철학과 맑스－레닌주의를 포함한 유물론철학들은 물질과 의식의 상호관계의 원리에 기초하여 물질 혹은 정신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는 철학적 방법에 의거해 세계관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시기 철학은 도대체 철학적 방법문제를 무엇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가 하는 문제로 리해하지조차 못하였다.

주체철학은 사상사에서 최초로 무엇을 중심에 놓고 세계를 고찰하느냐는 문제를 철학적방법의 문제로 새롭게 규명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고찰하며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철학적방법을 정립하였던것이다.

그러면 사람중심으로 세계를 고찰해야 할 리유는 무엇인가? 그 근거에 관해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마디로 명쾌하게 설파하시였다.

주체사관의 기초원리	민중은 사회력사의 주체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인류력사는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	사회력사적운동은 민중의 창조적운동이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추진력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것은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부표 3≫ 주체사관의 기초원리

≪그러면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문제에 대하여≫, 2페지)

이와 같이 주체사상은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는 새로운 철학적방법을 정립함으로써 명실공히 인간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인간중심의 독창적인 철학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사상의 전체계와 내용을 새로운 독창적인 원리들로 심화발전시키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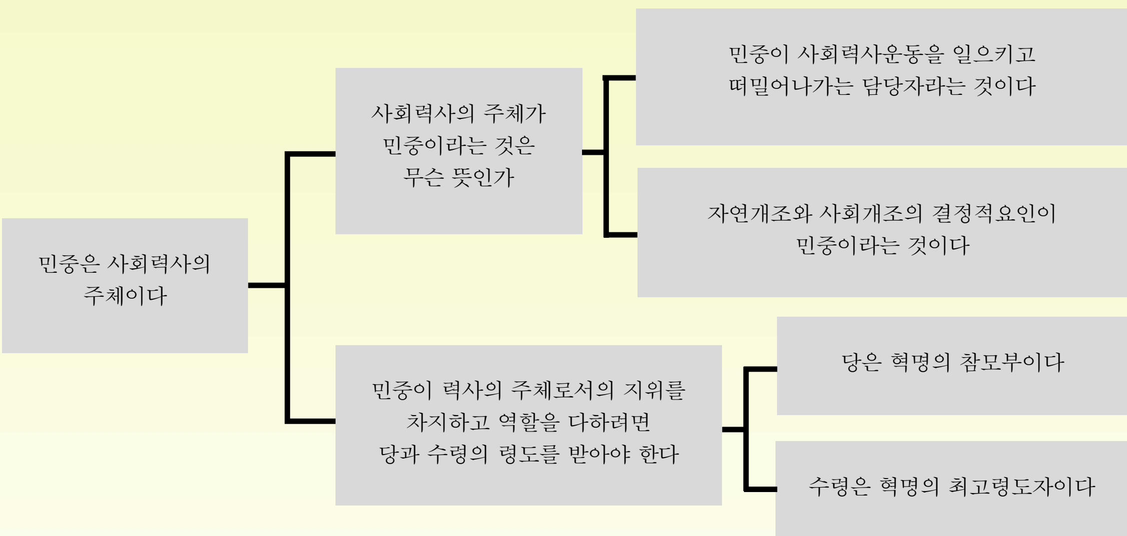
그분께서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이것은 인류의 철학사에 쌓아놓은 금자탑과 같은 빛나는 공적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분명히 해명될 때 인간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해진다. 또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운명문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은 다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운명에 관한 문제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로 압축된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이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는 근로하는 민중이 력사의 주인이 되어 자기운명과 력사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현시대에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되는것이며, 이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설정한 **김정일**령도자의 심오한 학문적경지와 빛나는 예지는 또 한번 지구촌의 철학가들과 활동가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을 심화발전시키신 그분의 리론적 공적에서의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다.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누구나 생각해본 문제이면서도 그렇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통속적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인듯하나 일단 철학이라는 학문과 결합시켜 상정하면 결코 단순하게 넘길수 없는 사람의 삶과 운명의 문제이다. 그래서 고금동서의 수많은 철학자, 사상가, 종교가, 예술가들이 사람에 대해 사색하고 고민하고 론쟁하면서 전력을 기울여 탐구해왔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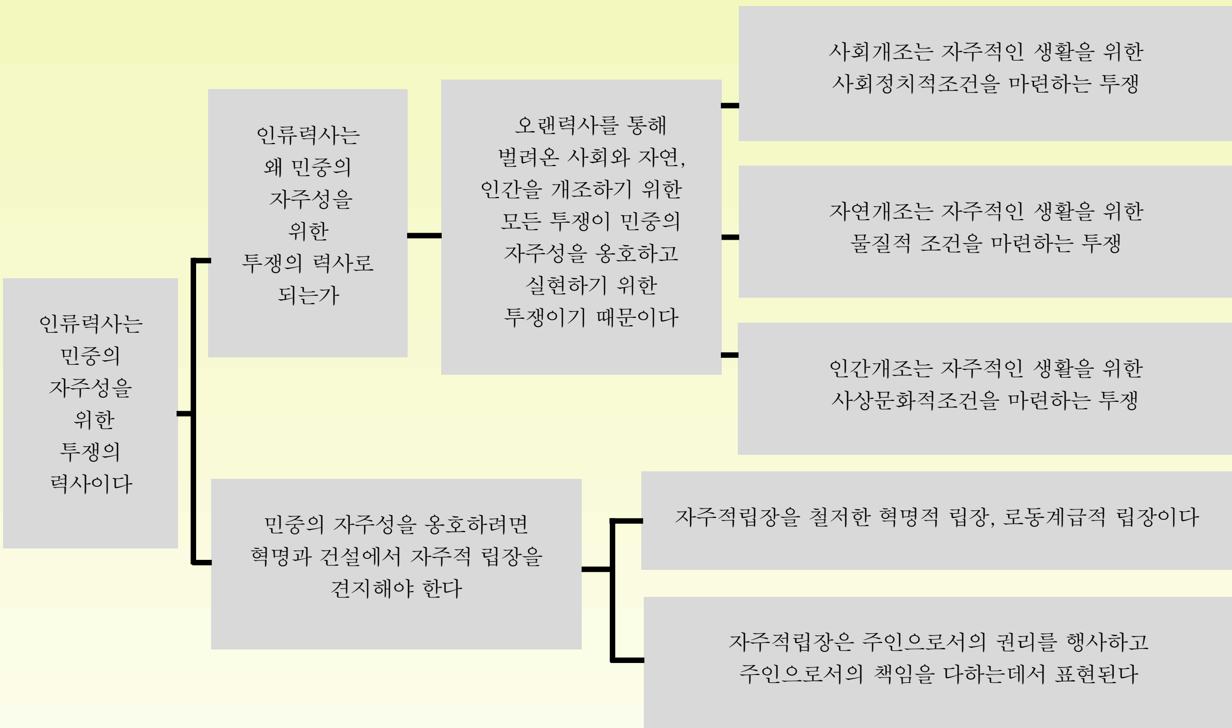
≪부표 4≫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

러 학설이나 사상은 사람이 무엇이라는 완전한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확한 존재적 의미와 본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

1 인간문제를 제일 먼저 철학적으로 고찰한 사람으로서 ≪너자신을 알라≫고 말한 쏘크라테스는 ≪불멸의 령혼≫을 사람의 본질로 보고 ≪도덕≫을 그 속성이라고 보았다. 또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인간성을 사람안에 있는 동물성과 구별되는 정신적 제 특성의 총체라고 했다. 근세에 들어와 인간성을 깊이 고찰한 칸트의 인간관을 보면 그의 인간관은 리성적인간관과 감성적인 인간관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이에르바하는 감성을 기초로 해서 지, 정, 의를 갖춘 사람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포이에르바하는 사람을 인간성일반으로 파악함으러써 력사적, 사회적인 것, 실천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못했다. 바로 이 같은 추상성이≪인간학≫이 넘지 못하는 한계였다.

인간에 관한 탐구는 맑스에 의해 하나의 획선을 긋는 성과를 거두었다.[2] 그러나 인간을 세계에서 자주적존재로 인식하고 그의 역할을 만능적존재로 끌어올린 것은 주체철학뿐이다.

2 맑스철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견해가 그것의 세가지 구성체계에서 각측면별로 고찰되여있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의 의식과 물질의 관계에서 고찰되였고 변증법에서는 사람의 사유에서 작용하는 보편적 법칙이 고찰되였으며, 사적유물론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토대와 상부구조에서 고찰되였다. 요컨대 사람은 사회적관계의 총체라는 것이 맑스주의철학의 리해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인간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자체의 자연사적인 운동과정에서만 고찰됨으로써 인간의 활동문제는 시야밖으로 밀려났다. 그리하여 맑스주의철학에서는 의식과 사유와 실천의 총체로서의 사람에 대한 견해를 발전시킬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것이 철학의 근본문제로 시발될 수 없었다. 이렇게 아득한 인류사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동안 인간의 본질적속성에 대한 탐색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지만 오직 사람을 철학적고찰의 중심에 놓고 인간을 력사적으로 분석한 주체철학에서만 사람의 본질적속성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해명하고 그에 관한 리론적완결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



≪부표 5≫ 사회력사적운동의 성격

주체철학은 사람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자주성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이다. 이같은 세가지 본질적 특성은 상호 련관되여 통일적으로 발현된다.

이렇게 사람은 자주성을 통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며 창조성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는 의식성, 즉 사상의식적인 의지로써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사람의 운명의 주인은 사람자신이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사람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주체사상은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인류사상 초유로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철학적사유가 시작된이래 중단없이 론의되여오던 인간문제에 대한 완성된 철학적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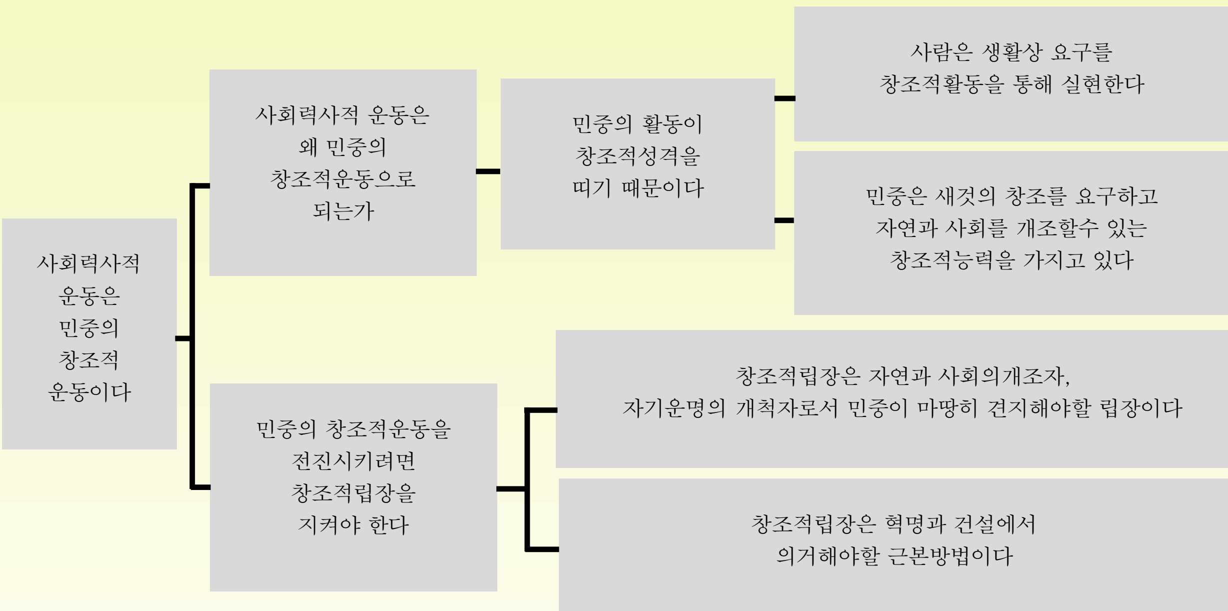
장구한 세월의 력사를 거슬러 그 갈피갈피를 탐색하고 분석, 종합하여 인간의 본질을 발견하고 사람을 세계의 중심으로 보는 주체적세계관을 확립한 주체사상의 공적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내놓음으로써 이룩했던 력사적전환보다 더 근원적의미를 가지는것이며 불의 발견과 같은 인류사 최초의 전환적사변보다 더 위대하다고 평해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람 즉 민중을 중심에 놓고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공헌을 하시였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 7페지)

사회력사관은 한마디로 사회력사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체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주체철학이 밝힌 사회력사관은 사회력사에서 민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기초적인 문제로 삼고 민중을 사회력사의 주체로 세운 민중중심의 사회력사관이다. 한마디로 그 요점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고찰하



≪부표 6≫ 사회력사적운동의 추동력

고 있다는 그것이다. 바로 이 점에 주체의 사회력사관이 선행된 모든 력사관과 차원을 달리하는 독창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력사관에 대한 고찰은 그 주체가 무엇이냐는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왜냐하면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리해하는데서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적운동에는 자연의 운동과는 달리 주체가 있으며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는 사회력사적운동의 근본특징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리고 력사의 주체는 민중이라는 주체사관의 기초원리를 확정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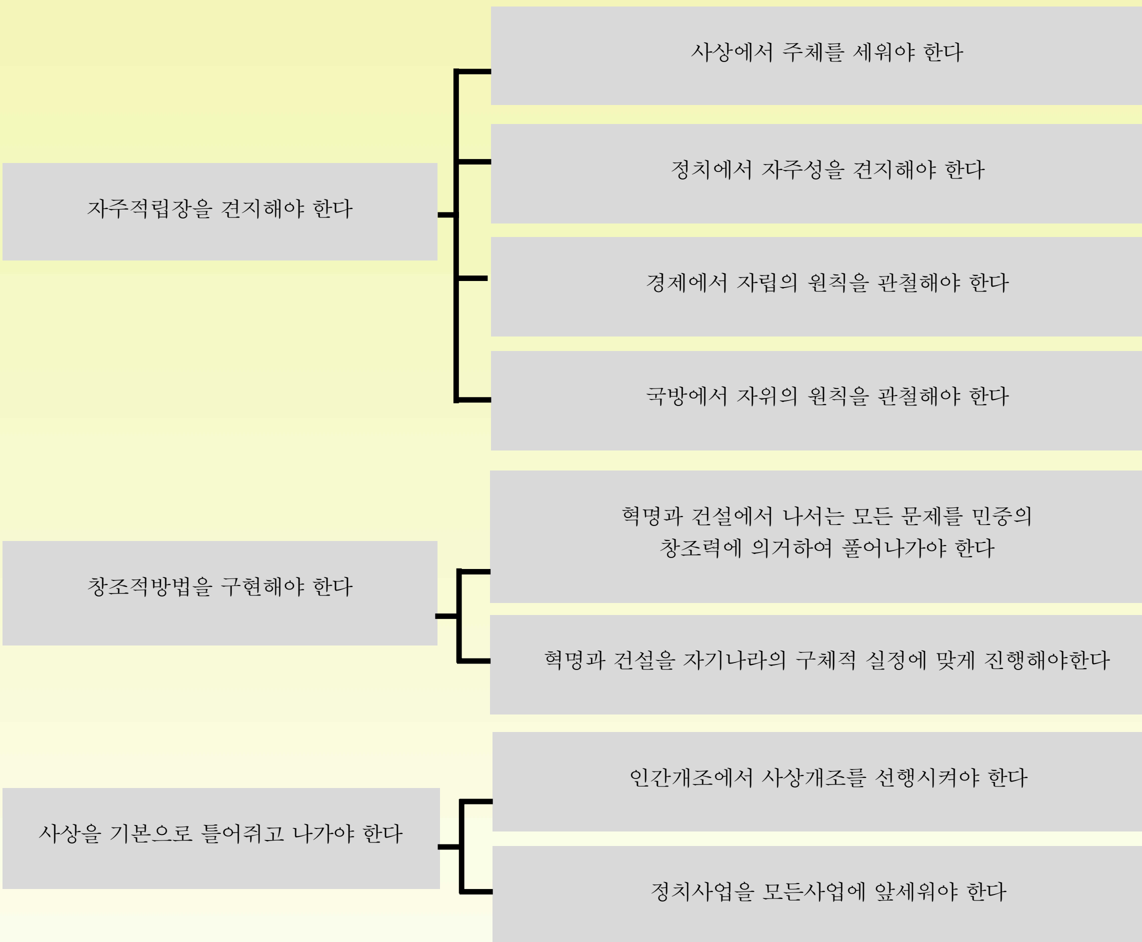
그분에 의하면 민중이 력사의 주체가 되는 근거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민중이 사회적운동의 근본원인이 되는 지향 즉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지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며, 둘째로 민중이 사회적운동을 추진시켜나가는 창조적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력사의 참된 주체를 발견하고 민중이 력사의 주체임을 천명하신 것은 력사관의 발전과 사람의 운명개척에 대한 거대한 기여이며 이 또한 그분이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빛나는 공적의 하나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어서 사회력사적운동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를 혁신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력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



≪부표 7≫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을 완성하는데서 이룩한 주체사상의 중요한 공적이 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76페지)

일반적으로 운동과정의 합법칙성은 그 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진력을 밝힘으로써 원리적으로 체계화되며 그것은 운동의 담당자가 체현하고 있는 본질적속성의 발현 및 실천과정의 해명으로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력사운동의 주체인 민중 즉 사람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토대해 사회력사운동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해명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였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은 사람의 자주성에 의해 규정되고 운동의 성격은 창조성에 의해 규정되며 운동의 추진력은 의식성 즉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사회력사적운동은 민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운동에서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에 대한 혁신적견해가 제시되였다. 이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진력에 대한 새로운 해명이 된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한 사회력사적운동의 본질과 성격, 그 추진력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였다는 사실이 지니는 리론적, 실천적 의의는 막중한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사회력사적운동이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주적운동임이 확인되였고 이 운동이 창조적성격을 지니고 있는 민중의 활동임이 밝혀졌다. 사회력사적운동에 대한 주체사관의 이같은 리론적해명은 민족민주운동을 그 주인인 민중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시킬수 있다는 신념을 주는 동시에 자기의 힘을 적극적인 투쟁속에서 신장시켜야 한다는 각성을 촉구하게 한다.

이런 시각에서 사회력사적운동의 추진력문제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력사적운동의 추진력이 무엇이냐는 문제가 정확히 규명되여야 민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며 운동앞에 나타나는 난관을 성공리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력사적운동의 추진력문제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규명된 것은 바로 주체의 사회력사관에서였다.

력사적으로 대충 훑어보면 사회력사적운동을 ≪탁월한 개인≫의 력사창조행위로 보는 사관에서는 개인의 ≪의지≫를 운동의 추진력으로 보았고 생산양식의 운동을 사회력사적운동으로 본 맑스의 사적유물론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해결하는 계급투쟁과 경제적힘이 ≪력사의 기관차≫, 추진력이라고 보았다.

맑스의 사적유물론은 ≪경제적인 힘이 력사의 과정을 결정한다.≫고 보는 사회력사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3]

3 엥겔스자신이 ≪모든 력사적사건의 원인과 추진력을 사회의 경제적발전에서, 생산양식과 교환양식의 변화에서, 여러 계급으로 분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여러 계급의 상호투쟁속에서 발전하려는 력사과정에 관한 견해≫로 설명하고있는 것을 보면 일단 사적유물론이 ≪경제적 힘≫을 력사의 추진력으로 보고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사이의 모순이 사회력사적운동의 근본원인이며 추진력이라고 보는 맑스주의의 견해는 운동의 객관적요건을 해명하는데서는 의의가 있다고 보지만 사회력사적운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변혁운동의 객관적여건이 성숙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메터일뿐이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도자에 의해 처음으로 력사발전에서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적원리가 규명됨으로써 사회력사적운동발전에 관한 리론이 완전한 내용을 갖춘 학설로 정립됨을 보게 되였다.

주체의 사회력사관은 사회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이것은 민중의 사회변혁운동과 리상사회건설의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을 주고 있다.

주체사관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창조한 정신적, 물적 부 그리고 이들

사이의 관계인 사회적관계를 구성요소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규정한다. 이같은 사회가 상승발전한다는 것은 사회의 주인인 사람의 자주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이란 사람들이 자기의 창조적활동으로 자주성을 실현해가는 목적의식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의 발전, 다시말해서 인간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의 향상과 창조적능력의 신장에 따라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것이 사회발전의 기본법칙이다. 그분의 이러한 주체적인 견해로부터 물질적요새에 비한 사상적요새의 점령을 앞세운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방침과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 문화혁명을 밀고나가는 3대혁명에 관한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이 흘러 나오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이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체계화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주체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로 발전풍부화하시였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로 풍부화하신 **김정일**령도자의 공적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단계와 로정, 그 투쟁의 중요구성부분과 순차적과정, 근본 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히신 것이다.

그분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단계와 로정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규명하시였다. 이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합법칙적 단계와 로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빛나는 모범이다.

그분은 또한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구성부분을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3대개조를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변혁의 기본령역과 과제를 새롭게 밝힌 것으로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의 가장 정확한 길을 명시한 커다란 공적이다.

그분은 이와 함께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슬로건을 제시하시여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총적 방향과 방도를 천명하시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슬로건을 내놓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관정에서 줄곧 틀어쥐고 나가야 할 투쟁원칙을 밝히시였다. 그리고 사상전에 관한 리론으로 인간개조사업의 가장 올바른 방법을 명시하시고 속도전에 관한 리론으로 사회개조와 자연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전투형식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렇듯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의 단계와 로정으로부터 이 투쟁의 중요구성부분과 총적방향, 투쟁 원칙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혁명리론은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모든 단계와 모든 령역의 리론을 포괄하고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이룩하신 사상리론적 업적가운데서 특기할 업적은 주체의 령도방법론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신 것이다.

> **≪령도방법문제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리론실천적으로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김일성**주의의 독창성을 옳게 인식할데 대하여≫, 6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민중의 자주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인만큼 그것은 올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정확한 령도방법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주체의 영도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민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민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고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갈 것을 강조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특히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대중지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

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시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가 본질에 있어서 당과 수령의 령도라는 것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것이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18페지)

민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면 반드시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여야 한다. 민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대중지도는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에 의해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고 수령은 민중에 대한 령도를 통일적으로 실현하는 혁명의 최고지도자이다. 민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할 수 있으며 리상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대중지도의 본질에 대한 주체적해명에 기초하여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관철하는 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임을 명철하게 밝히시였다. 그분께서 밝히신 대중지도의 원칙은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 혁명의 자주적주체를 형성하며 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주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향도적지침이다.

그분께서는 대중지도의 본질과 원칙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상 최초로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지도체계에 관한 리론을 새롭게 제기하고 체계화하시였다.

령도체계는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질서와 제도, 조직, 기구들의 전일적인 총체로서 령도방법의 필수적인 구성부분이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는 일정한 령도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는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해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이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령도체계이다. 수령의 후계자의 유일적지도체계는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의 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수령이 개척한 자주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다.

그분께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에서 당과 그 인전대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심으로써 당과 인전대들에 대한 주체적리해를 주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워나갈수 있는 길을 밝히시였다. 구체적으로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 령도체계에서 향도적력량을 이룬다. 인민정권은 광범한 민중을 당과 수령에게 결집시키는 당의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이다. 근로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대중을 망라한 대중정치조직으로서 령도체계에서 당과 대중을 련계하는 인전대이다.

김정일령도자에 의해서 수령과 그 후계자의 령도체계에 관한 리론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혁명적령도방법의 초석이 마련되고 민중의 힘과 지혜를 발양시키는 것을 필수적요건으로 하는 대중지도의 기본요구를 성공적으로 실현해나갈 수 있게 되였다.

그분께서는 군중로선을 구현환 혁명적활동방법과 민중적활동작풍의 내용과 그 확립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써 령도예술에 관한 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재부들로 풍부화하시였다.

혁명에 전략전술이 있어야 하고 정치투쟁에 정치투쟁술이 필요한것처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령도예술을 소유해야 한다.

령도예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 리해된다. 즉 대중속으로 들어가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것이 바로 령도이며 그것을 효률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령도예술이다.

주체의 령도예술은 주체의 령도리론에 기초하여 수립되여있으며 주체의 령도리론은 령도에 관한 리론과 방법론을 포괄하고 있다. 령도에 관한 리론은 령도의 본질을 해명하고 령도의 방법론은 령도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령도의 본질은 당과 수령의 대중을 자주성실현에로 견인하는 것이다. 령도예술의 기본원칙은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것이며 또한 대중로선을 견지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주체의 령도예술은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에 립각하여 군중로선을 구현한것이라고 본다.

조선로동당의 령도예술에서 중요한 내용은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혁명적이며 민중적인 사업방법, 사업작풍이다. 혁명적사업방법과 민중적사업작풍을 소유하는 것은 당과 수령의 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필요한 것이다.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사업방방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강조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주권을 잡기전이나 잡은 다음에나 또한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나 언제나 혁명적사업벙법을 견지하여야 합니다.≫(우와같은 책, 59페지)

주체의 사업방법은 민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립장을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사업방법은 사람과의 사업의 방법과 수법의 총체이다.

이와 같은 주체의 사업방법의 요체는 대중에 의거하는것이며 여기에 그 혁명성과 과학성, 전투성과 력동성이 있다.

주체의 사업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 정치사업을 모든활동에 우선시키는것이고 둘째, 상부가 하부를 돕는것이며 셋째, 격식과 틀이 없이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또한 넷째, 활동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가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민중적사업작풍을 습득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강조된다.

사업작풍은 대중과의 사업에서 표출되는 활동가들의 품격의 총체이다. 그것이 결코 활동능력과 수완,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며 활동가의 사상과 관점의 표현이라는 점에 류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연급되여야 할 강조점은 관료주의, 교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민중적사업작풍에서 중요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활동가들의 성실성과 책임성이고 둘째, 헌신성과 솔선수범이며 셋째, 민중에 대한 존중과 넓은 도량이다. 그리고 넷째, 겸손성과 소박성, 청렴결백이다.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상의 주체의 령도예술은 항일유격대식사업작풍을 그의 혁명전통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으로 발전되여 활동가들에게 금과옥조와 같이 귀중한 활동지침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전면적으로 밝혀진 혁명적사업방법과 민중적사업작풍은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였으며 그 결과 변혁운동의 활동가들이 전위투사로, 민중의 충복으로서 자기의 력사적소명에 맞는 고상한 정치도덕적품격을 갖추며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지도와 대중을 밀접히 결합시켜 민중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사상론과 수령론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적위대성에 대한 보다 깊은 리해를 가지려면 그분께서 독창적으로 주창하신 사상론과 수령론에 대해 파악해야하고 그 리론적탁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분의 사상과 리론이 사상론을 기초로 하고 수령론을 핵으로 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기 때문이다.

사상론과 수령론은 그분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이며 그분의 사상과 리론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기조사상이다. 사상론을 기초로 하고 수령론을 중핵으로 하여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이 도출되고 심오한 리론이 전개되여있는데 바로 **김정일**사상의 근본특징이 있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 **≪우리 당은 문화일반으로부터 사상을 분리해내고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을 내놓았습니다.≫**(≪사회주의건설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21페지)

모든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	정치사업을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하는 것 정치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 정치사업을 혁명적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것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군중에 의거하여 혁명과제를 수행하는 것	주체적인 군중관점을 가지는 것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을 습성화하는 것
모든 사업을 객관적현실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는것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옳게 결합하는 것 중심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 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는 것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는 것	대중운동의 형태를 바로 규정하고 투쟁목표와 과제를 뚜렷이 제시하는 것 투쟁구호를 옳게 제시하는 것

≪부표 8≫ 혁명적사업방법

사상의식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는 뜻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사상의식의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해명을 기다리는 중요하고도 절실한 문제로 되고있었다. 인류사상사를 거슬러올라가보면 관념론에서는 사상의식의 역할이 신비화되였고 맑스주의이전의 유물론에서는 사상의식의 역할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맑스주의철학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을 세우는 것	언제나 원대한 구상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는 것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기풍을 세우는 것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는 것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적기풍을 세우는 것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는 것 혁명과제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며 생활하는 것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는 것 혁명적락관주의와 왕성한 사업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는 것 높은 문화적소양을 가지고 문화정서적으로 생활하는 것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한 사업기풍을 세우는 것	어떤정황에서나 원칙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 것 부정적현상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것 모든문제를 심사숙고하여 로숙하게 처리하는 것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는 기풍을 세우는 것	높은 당성 혁명성을 가지고 맡겨진 임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품성을 가지는 것 실지 행동으로 대중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
민중적인 품성을 가지는 것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민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것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민중을 대하고 민중의 심부름꾼이 되는것
겸손하고 소탈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는 것	세도를 쓰지말고 틀을 차리지 않는 것 가식이 없고 정직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 사회주의 생활양식대로 고상하게 생활하는 것

≪부표 9≫ 민중적사업작풍

에서는 사회적존재가 사회적의식을 규정한다는 원리로부터 시발하여 의식은 존재를 반영하지만 그에 반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맑스주의철학에서는 의식의 역할을 주로 지식의 역할에 귀결시켰다.

인간의 의식은 그 원천과 내용에 따라 크게 지식과 사상으로 구분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상의식은 지식과는 달리 인간의 생활적요구와 그와 관련된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라는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데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사상론을 내놓으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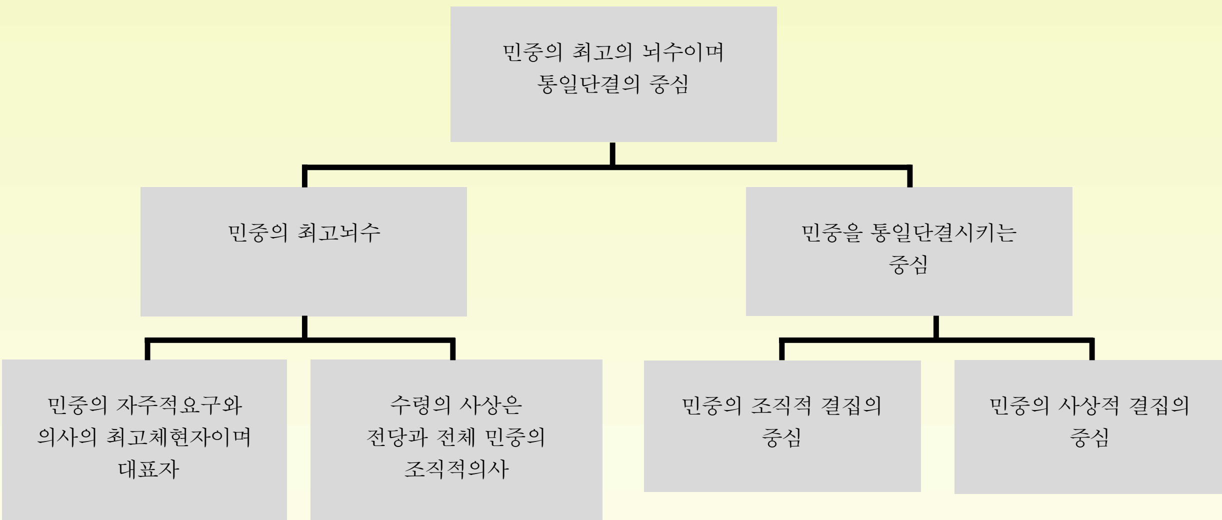
사상론은 일찍이 학창시절부터 주장해오신 그분의 지론이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62년초 사상의식은 물질적조건에 의해 규정되고 그의 변화보다 뒤떨어진다고 본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시였다.

≪…물론 물질적생산과 정신적생산이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 있으며 경제발전이 사상의식발전에 큰 영향을 주는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상의식은 오직 물질적조건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보거나 또 객관세계를 반영만 한다고 보거나 또 현실보다 꼭 뒤떨어지기만 한다고 보는 견해는 전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대를 대표하는 선진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표현하여 나타나는 것이며 언제나 현실보다 앞서나간다는 것을 인류사상사는 증명하여주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무를 보시기 시작한 첫시기부터 일군들에게 사상론의 원리를 깨우쳐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상사업 선행방침을 관철하도록 하시였다.

1967년 4월 그분께서는 당시 일부 교조적인 사람들이 ≪사상혁명을 선행하는 것은 물질의 일차성에 관한 유물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데 대해 사람이 물질적 존재라고 해서 물질일반에 용해시키고, 사상의식은 객관적인 물질적존재와 구별되는 관념적인것이라 해서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의식이 수행하는 역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물질이 일차냐 의식이 일차냐 하며 싸우던 고전철학자들보다도 더 유치하고



≪부표 10≫ 수령의 지위

몽매한 무식쟁이들이며 가짜 유물론자들이라고 비판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어서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리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온것이지 ≪신≫이 가져다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회적존재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으며 지식과는 달리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로 표현되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데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상의식의 본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론적 정식화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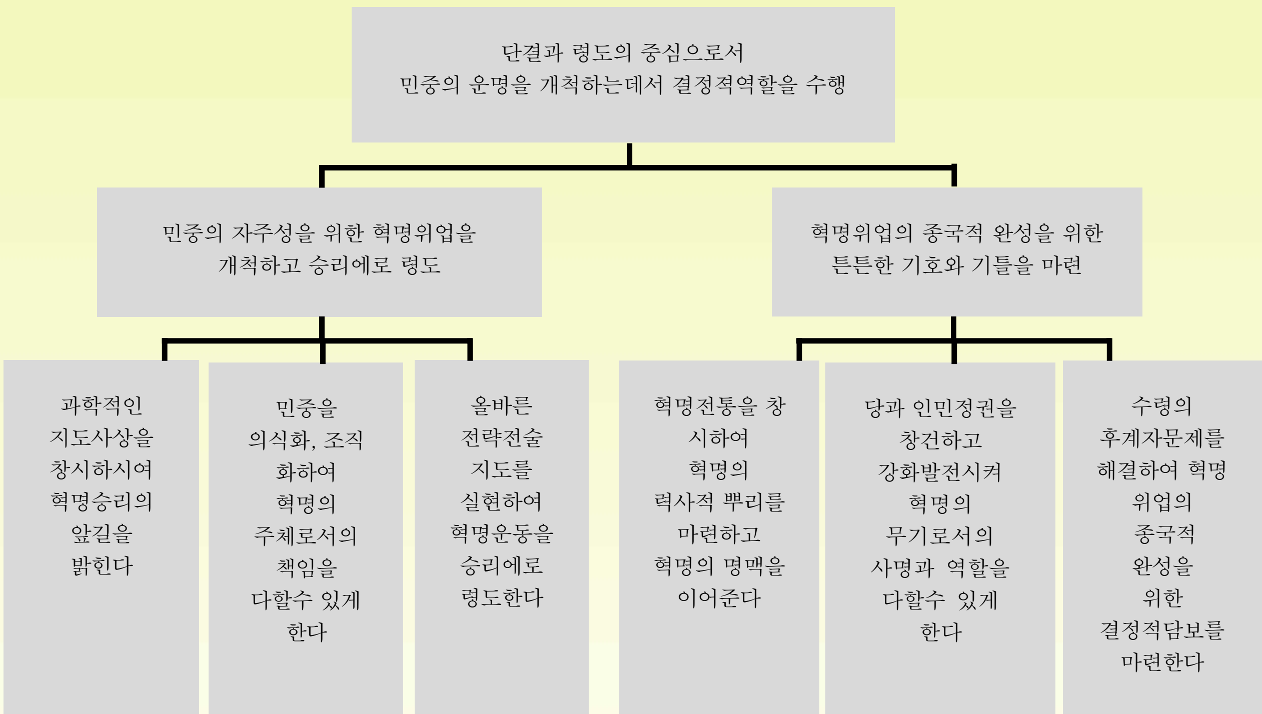
주체사상은 사상론이 세계의 물질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고 인간의 활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임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독창적인 리론이며 의식의 객관적 원천자체를 부정하는 관념론과는 전혀 인연이 없다고 본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영화예술론≫을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에서 사상의식의 본질과 역할,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보다 심오히 해명하시고 사상이 기본이며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의 위치를 더욱 분명히 확정하시였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계급적출신과 경제생활처지, 사회력사적조건과 주의환경, 학교교육에 기초하여 형성되며 실천투쟁속에서 공고화되고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다는 것이 그분에 의해 밝혀진 사상의식의 형성발전에 관한 합법칙성이다.

사상론은 사람이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되려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대립되는 것이 노예적 굴종의식이며 그 대표적인 표현이 사대주의라는 것을 리해하면 자주적인 사상의식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변혁운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설수 있다. 변혁운동은 사람들을 선진사상으로 각성시키는것으로부터 시작되



≪부표 11≫ 수령의 역할

고 선진사상으로 무장한 민중의 힘에 의해 승리에로 종착된다. 그러므로 혁명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주인인 민중을 자주의식화해야 한다.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론은 민족의 자주성, 민중의 자주성을 위해 투쟁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계급적표징보다 그의 사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사람의 행동은 사회계급적처지에 기초를 두며 그에 의해서 제약된다. 하지만 사회계급적처지는 어디까지나 사상의식을 거쳐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유한 가정출신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의식화되면 민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사람은 사상과 행동을 가지고 평가해야 하며 사회적진보와 민중의 자주위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출신에 관계없이 믿고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론이 밝힌 상이한 계급, 계층의 사람들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이고 립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세인들의 선망속에 격찬되고있는 **김정일**령도자의 믿음과 사랑의 철학에 기초한 인덕정치, 광폭정치가 사상론에 그 뿌리를 두고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사상론은 또한 변혁운동에서 발휘되는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력도 사상의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대중의 창조적능력은 무궁무진하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할때에는 그것이 높이 발양될수 없는 것이다. 이로부터 사상론은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것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일관한 원칙으로 제기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론이야말로 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보장하는 만능의 보검이며 전인류를 리상사회에로 견인하는 필승의 기치이다. 이같이 빛나는 사상론을 창출하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적천재성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아무리 칭송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백수십년에 걸치는 국제혁명운동사는 그 개척기에 벌써 민중의 운명 개척에서 수령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진리를 확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올바른 수령론을 정립하지 못하였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수령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분은 우리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리론가이신 **김정일**령도자이시다.

≪혁명에서 수령문제가 기본핵입니다. 인민대중이 욕망하나만으로 혁명할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고 단결을 주는 사상리론의 뇌수,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뇌수, 그 중심이 수령입니다.≫

인류의 철학사는 장구한 기간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것이 민중이냐, 개인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론쟁해왔다. 하지만 맑스주의이전에는 탁월한 개인, 이를테면 군주나 영웅이나 명장들에 의해 력사가 창조되고 민중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이런 그릇된 견해는 맑스주의유물사관에 의해 극복되였다. 맑스주의는 영웅이 력사를 창조하는것이 아니라 민중이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의 이같은 리해가 사회발전의 기초에 생산양식이 놓여있고 사회력사발전의 추진력이 생산력과 생산관의 모순이며 력사발전과정이 자연사적과정이라는 리론의 틀안에서 세워진데로부터 맑스-레닌주의는 개인과 민중의 수령을 구분하지 못하고 수령의 역할을 개인의 역할에 용해시키는 리론적오류를 드러냈다. 영명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민중의 수령은 민중이 뇌수이지 개인이 아니므로 력사발전에서 민중의 역할과 수령의 역할을 대립시켜서는 안된다는 력사적인 결론을 내리시였다.

우크라이나 끼예브대학교 베르듸세브교수는 ≪수령과 그 위업의 계승≫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조선에서는 수령관부터 다른 나라들에서와는 다르게 정립되였다. 맑스-레닌주의에서는 아무리 탁월한 수령도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들에게

≪개인숭배≫라고 그 권위를 깎아내릴수 있는 리론적공간을 허용하고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에 따르면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져있는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라고 사상과 령도, 단결의 중심으로서 뇌수가 인간의 활동에서 그러하듯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의 이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이런 리론적전제로부터 인민대중이 수령을 숭배하고 수령과 사상, 숨결, 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리치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만을 절대시하는 사람들로서는 초등수학만 배운 학생들이 고등수학을 깨치기 힘들어하듯이 수령과 인민대중의 이러한 의탁숭배관계, 혈연적관계가 잘 리해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나에게는 충분히 리해되고 공감된다.≫고 자기의 리해를 피력했다.

수령이 민중의 최고뇌수,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민중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은 혁명의 자주적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하고 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김정일령도자의 다음의 명제는 혁명의 자주적주체가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8페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력사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민중이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 민중은 자기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짊어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민중은 자기의 전위조직을 가지고 수령을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결합될 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비유하여 말하면 인간의 육체가 아직 골격이 튼튼해지고 심장이 단련되고 뇌수가 발달하기전까지는 성인으로서의 활동을 다할수 없듯이 민중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면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하며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민중의 출현과 수령의 출현은 그 시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중적 수령의 력사와 자주적인 민중의 력사는 동시에 시작되고 그때부터 인류의 본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상리론의 영재이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수령론을 사회정치적생명체에 관한 리론과 결합시켜 더욱 깊이있게 전개하고 완성하시였다. 그분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 수령이라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시였다.

>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우와같은 책, 18-19페지)

혁명의 주체를 그 구성과 결합방식의 면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고 한다면 그 존재와 활동방식의 특성에 면에서는 ≪사회정치적생명체≫라고 할수 있다.

사회정치적으로 집단을 이루고 생명활동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 개개인은 각기 다른 생활상 요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사회의 전국성원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여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면 개개인의 상이한 요구와 능력을 집단의 공동의 요구 및 능력과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그 중심이 바로 수령인 것이다. 수령은 민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민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이것이 **김정일**령도자께서 명시하신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의 수령의 지위이고 역할이다.

주체의 수령론은 사람들에게 가장 올바른 수령관을 제시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적수령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입니다.≫(≪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 4페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고 있다.

민중의 자주위업 수행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 계승된다. 왜냐하면 민중의 자주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기 때문이수령의 후계자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는 민중의 수령이기 때문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체현한 수령의 후계자는 민중의 령도자로 추대되며 대를 이어 계속되는 민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수령과 동일한 절대적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하게된다.

탁월한 수령을 모신 민중은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은 민중이고 대를 이어 걸출한 수령을 배출시키는 사회는 보다 발전되고 선진적인 사회하고 할수 있다. 따라서 민족과 민중에게 있어서 최대의 행운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는 것이며 가장 큰 불행은 령도자를 잘못 만나는 것이다. 수령의 권위는 나라의 권위이고 수령의 위대성은 곧 민족의 위대성이 된다.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은 또한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가장 올바른 립장과 자세를 가르쳐 준다.

전민중이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 것은 수령의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높은 자가에서 우러나오는 숭고한 사상감정의 발현인 것이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천명하신 주체의 수령론은 오늘 그 진리성과 과학성, 정당성이 움직일수 없게 확증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빠리 제1종합대학 철학교수였던 삐에르 부도박사는 1987년 3월 아테네 빤띠오스 정치대학에서 진행한 ≪주체의 수령관에 대하여≫라는 강의에서 ≪수령과 민중은 혼연일체이다. 당신의 행동은 무엇에 의하여 지배되는가. 물론 당신의 뇌수에 의하여 조절통제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당신은 자신을 자기뇌수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수령과 민중사이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실현될수 있으며 개개인의 개성도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꽃필수 있는것이다.≫라고 력설하였다.

오늘 이남에서도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이므로 이를 리해함이 없이는 주체사상을 파악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ìÁÖ°£ÁÌ¼±¡í , 1989³â 3È£)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수령론을 창출하신 공적은 시대와 력사, 민족과 인류를 위해 이룩하신 그분의 사상리론적업적중에서도 력사에 금문자로 특기할 업적이라는 것이 정평이다.

온 세계의 추앙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시대의 정화)

진보적사상은 사회력사발전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 향방을 가르쳐주는 라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망망대해를 해쳐가는 배들이 등대가 있고 라침판이 있기에 안전하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당도하듯이 사람은 올바른 사상의 향도를 받아야 삶의 향방을 바로잡고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올바른 향도리념이 없이는 곡절많은 력사의 로정을 헤쳐나가야 하는 민중의 자주위업을 방향상실이나 궤도리탈이 없이 밀고나갈수 없는 것이다.

오늘 인류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사상을 향도리념으로 수용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민중이 세계를 개조변혁하고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힌 인류해방의 기치이다.

력사발전의 시대마다 그에 상응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 시대의 요구라 할 때 그것은 시대의 중심에서 사회력사발전을 추진해나가는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말한다.,

자주성의 시대의 기본요구는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민중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이룩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이같은 시대적요청에 화답하여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상이한 발전단계에 놓여있는 지구촌의 모든 민중이 자주성을 실현하는 길을 뚜렷이 밝히시였다. 이런 의미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은 주체사상의 보다 높은 차원에로의 발전으로, 그 완성으로 된다고 본다.

그분의 사상리론을 위대한 **김일성**주의의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인 계승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그분께서 내놓으신 모든 사상과 리론이 철두철미 **김일성**주의의 진수를 이루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주체사상으로 관통되여있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김일성**주의의 구성체계에 따라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리론은 **김일성**주의의 전면적이고도 직접적인 계승인 동시에 그 심화발전으로 알려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의 원리와 명제들을 밝히시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심화시킨 공적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이북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해답을 주는 새롭고

명칭	창립일	본부소재지	관할범위
주체사상국제연구소	1978. 4	일본도쿄	전세계
아세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1980. 9	일본도쿄	아세아, 대양주
아프리카 주체사상연구소	1985. 4	시에라리온 프리타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1978. 2	꼬스따리까 싼호세	라틴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구라파지역 주체사상연구소	1985. 10	프랑스 빠리	구라파

≪부표 12≫ 주체사상 국제 연구소 및 지역별 주체사상연구소 활동상황

독창적이며 심오한 리론을 끊임없이 내놓으심으로써 **김일성**주의가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향도리념으로 휘황한 빛을 뿌리게 하신다. 이로부터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을 밝혀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김정일**령도자의 사상리론을 세인은 그분의 존함에 따라 **김정일**주의로 부르고 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김정일**주의연구쎈터≫등이 광범히 결성되고 있는 것은 당위적인 귀결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93년 3월 도꾜 **김정일**저작연구회의 결성을 시발로 하여 30여개 지역과 단위에서 **김정일**저작연구회와 학습회가 련속적으로 출범하였으며 그것은 1994년 2월 오사까에서 전국조직인 ≪일본 **김정일**저작연구회 련락협의회≫를 결성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나이제리아에서도 1994년 6월 13일 각 주에 조직된 **김정일**저작연구소조 대표들이 오니쨔에 모여 ≪**김정일**저작연구 나이제리아 전국위원회≫의 탄생을 선포하였다. 로씨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이전 쏘련의 여러 지역에서 최근 수많은 **김정일**주의 연구소조와 쎈터들이 결성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파키스탄, 네팔, 우간다, 짐바브웨이, 프랑스, 뽀르뚜갈, 뽈스까, 벌가리아, 메히꼬, 꼬스따리까, 에꽈도르, 가이아나,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등 6대주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김정일**저작연구회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인간해방의 종국적승리를 이루어내려는 전세계 인류의 강렬한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1994년 9월 3일 ≪아세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는 전세계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새시대를 빛내이기 위해 그분의 탄생일인 2월 16일을 ≪주체의 날≫로 정하고 인류공동의 명절로 성대히 기념하는 것을 전통화할 것을 주체사상 지역연구소들과 민족위원회들에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더욱 폭넓게 연구보급하기 위해 매년 2월 16일을 계기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진행하며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할 것을 각 지역 연구소들과 민족위원회들에 호소하였다. 이 호소는 대륙별 지역연구소들과 각 민족위원회들의 일치된 찬성을 받았다.

맑스주의는 구라파에서 자본주의가 상승적으로 발전하고 로동계급을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 준비시키던 시기의 혁명사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맑스주의로서의 력사적지위를 차지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 주체시대의 향도사상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체시대는 민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시대로서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포괄한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시대사상의 최고정화로서 현시대와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향도리념이다. 바로 여기에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차지하는 고차원적, 력사적 지위가 있는 것이다.

지난 시대에는 맑스-레닌주의기치밑에 세계의 변혁과정이 이루어져나갔고 력사가 진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근로대중은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반자본투쟁을 벌려 마침내 제국주의련쇄에 파열구를 내고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시초를 열어놓았던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전진하는 시대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오늘 인류의 사상정신적개변과 세계의 변혁에 절대적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세계각국에 결성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수는 1천여개에 달하며 국가별로는 이 조직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정하는 민족위원회가 있다. 주체사상이 세계적판도로 급속히 파급됨에 따라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을 세계적범위에서 주관하는 상설기구인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창립되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타의 3대륙과



구라파에서는 지역연구소들이 창설되였다.

여기에 오늘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어떻게 출현하며 그 신봉자대렬이 얼마나 빨리 확대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있다.

1988년 4월 도꾜에 있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사무국에 다음과 같은 편지가 왔다.

≪프랑스에 있는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또 하나의 주체사상연구조직을 결성하고 존엄있는 귀 사무국에 이 사실을 알립니다.

여기 한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최근 몇해사이에 삐에르 부도교수의 영향하에 주체사상을 알게되고 인류적인 주체사상을 위해 생애를 바칠 것을 결심한 주체사상신봉자들입니다.

부도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얼마전에 우리의 곁을 떠나갔으나 생전의 그의 념원과 넋을 영원히 지켜주려는 의미에서 우리 조직의 이름을 ≪부도협회≫라고 하였습니다.≫

프랑스학계의 수많은 학자, 교수들을 주체사상신봉자로 사상전환시키는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삐에르 부도, 그는 프랑스인물사전에까지 니체철학의 열렬한 신봉자로 소개되여있는 빠리 제1종합대학의 권위있는 철학교수였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완고한 드골주의자였고 독실한 기독교신자이기도 하였다.

이런 그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저작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주체사상에 완전히 매혹되여 사상전환을 하게 된 것이다. 생전에 그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 저작은 **김정일**령도자의 명저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이 저작들을 처음 읽으면서 자기이 학술연구노트에 적어놓은 다음의 글이 잘 말해준다.

≪멀리로는 고대 희랍의 쏘크라테스로부터 가깝게는 현대의 맑스 쉘러의 ≪철학적 인간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철학류파들이 인간을 대상하여 론하였던가. 하지만 선행된 어느 철학가도 사람의 본질적특징을 주체철학처럼 그렇게 명백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지위와 존엄을 그렇듯 높이 올려세우지 못하였다. 인간의 철학적사유가 발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천년,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 비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참다운 철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삐에르 부도교수의 인생전환과 ≪부도협회≫의 출현과정은 온갖 반동적인 사상조류가 범람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있는 자본주의세계에서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된 새형의 자주적인 인간, 신념의 인간이 수많이 창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라와 민족별로, 집단의 사랑과 믿음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생명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물론 아직은 이 새로운 생명체들의 힘이 그리 크지 못할수 있지만 미구에 그것이 무성한 숲으로 자라나 온 지구촌을 뒤덮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전사상이 보급전파되는 경로를 보면 먼저 선각자들을 통해 씨가 뿌려지고 그들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과정을 거쳐 대중속으로 파급되게 된다.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으로 되는 끊임없는 증식과정이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가 1994년 4월에 집계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3년 한해동안에 세계적으로 14개국에서 39개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새로 결성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오늘 이남민중도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저작들을 통해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벌려나가고 있다. 이 땅에서 1980년대중반 이후 주체사상파문이 대학가의 범위를 훨씬 벗어나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게 된것도 그분의 저작들이 광범위하게 출판보급된것과 관련된다. 말하자면 이남민중이 반공의 두꺼운 벽을 뚫고 자기의 사상적 현주소를 바로 찾는데서 그분의 저작들이 결정적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한국≫의 운동권이 더듬어온 사상리론의 종착역이다.

30년의 력사를 가진 운동권에는 모택동사상, 종속리론, 불쉐위크혁명론 등 수많은 리론이 도입됐고 각기 한시기를 주도한 뒤 뒤전으로 물러났다.…

주체사상은 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한다. 대중은 무지한듯하면서도 실은 가장 현명하다.≫

(≪주간한국≫, 1989년 3호)

이남에서 주체사상이 변혁운동을 주도하는 리념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글이라 하겠다. 지난날 이남변혁운동은 향도리념을 바로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방향상실과 궤도리탈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남민중은 이 과정에 실지 체험을 통해 고난에 찬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향도리념은 주체사상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그 기치밑에 변혁운동을 벌려나가게 된 것이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 관한 연구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체사상은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민족해방투쟁의 와중에서 창시되고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검증된 민중중심의 위대한 철학이며 민중을 주체로 사회력사적원리를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우리 민중에게 민족의 자주성을 찾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고난에 찬 투쟁을 이겨낼 정신적지주를 주고 방략을 주는 유일무이한 향도리념, 민족의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외에 찾아볼수 없다.≫(≪말≫, 1987년 3월호)

사상을 수용하고 실천하는 주체는 다름아닌 민중자신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와 지향에 따라 사상을 선택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민중이 공감하고 따르는 사상이 곧 시대의 요구와 민중의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사상이라 할수 있으며 그런 사상이라야 시대를 대표하고 력사발전을 주도하는 향도리념으로 될수 있다. 사상은 저절로 실현되거나 외적강제에 의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사상은 그 진리성과 당위성을 파악한 대중의 힘에 의해 실천과 구현된다. ≪실현되지 않는 사상은 비누거품과 같다.≫는 말과 같이 만민이 공감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상은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주체사상에 접하는것조차 탄압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남땅에서 이 사상이 광범위한 대중적공감대를 형성하며 급속히 파급되고 변혁운동실천에 구현되여 무궁한 활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실이야말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오늘 인류사상의 가장 높은 령마루에서 시대를 밝히고 세계를 움직이는 유일한 향도리념, 인류해방의 위대한 기치임을 웅변으로 증언하고 있다.

주체철학

정치사전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주체시대가 제기한 모든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심오한 해답을 준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사상이다. 주체철학은 주체사상, 혁명사상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이룬다. 주체철학의 근본특징은 사람 중심(사람 위주)의 철학사상이라는 데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시상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9쪽)

주체철학이 사람 중심의 철학사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으며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그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해명하는 세계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주체철학은 사람 중심의 철학이라는 점에서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근본문제로 삼고 이 문제에 관한 원리에 기초해 전개된 선행 철학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순수 인간문제만을 대상으로 하고 세계관을 주는 과학으로서의 철학의 본래의 사명을 부인한 인간철학과도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주체철학의 중요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읍니다.**≫(위와 같은 문헌, 9쪽)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는 주체철학이 사람을 위주로 하여, 새롭게 제기한 철학의 근본 문제인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준 것이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종래 철학들의 근본문제인 물질과 의식의 관계 문제가 물질의 1차성에 관한 맑스주의 유물론적 원리에 의해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새롭게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이다.

그것은 사람의 운명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철학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참다운 근본문제이다. 철학이 사람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개조의 대상인 세계의 존재와 운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밝힐 뿐 아니라 사람이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근본 방도를 해명해야 하며 그러자면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는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두 측면인 사람과 주위세계와의 관계문제로서 그 해명은 철학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되는 가장 일반적인 근본원리를 이룬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가장 과학적으로 해명한 원리이므로 사람 위주의 철학적 원리로 되며 사람 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철학의 기초로 된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 주인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며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데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견해에 기초하고 있다. 주체철학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독창적인 견해를 확립하였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혔읍니다.**≫(위와 같은 문헌, 9쪽)

사람에 대한 주체철학의 견해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제기하고 해명하는 데 머무른 선행 노동계급의 철학과는 달리 사람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보면서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힌 독창적인 견해이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며 활동하며 그것을

개조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물질적 존재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 고유한 본질적 특성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연적,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는 사람의 사회적 속성이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자주성으로 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사람은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 나간다. 자주성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이룬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말한다. 사람은 생명유기체로서는 육체적 생명을 가지며 사회적 존재로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진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져야 사회적 존재로서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으므로 사회정치적 생명이 가장 귀중한 제일생명으로 된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창조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자연의 사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낡은 것을 변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면서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 있고 이로운 것으로 개변시켜 나간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의식성으로 인하여 사람은 맹목적으로 본능에 따라 활동하는 다른 생명물질과는 달리 세계와 그 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서로 다른 측면을 표현하지만 서로 밀접히 통일되어 있다. 자주성을 가져야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창조성을 가져야 자주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의식성을 전제로 하며 또 그에 의해 담보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월하고 힘있는 존재로 되며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은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 유일한 개조자로 된다. 주체철학에 의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해명됨으로써 사람에 대한 완벽한 철학적 견해가 확립되었으며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과학적으로 근거지어졌다. 주체철학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중요내용의 하나를 이루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견해이다.

≪세계는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된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밝힌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입니다.≫(위와 같은 문헌, 12~13쪽)

주체철학의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가 본질에 있어서 물질이고 그 자체의 운동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는 것이 해명된 조건에서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이며 그것을 개조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새로운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확립된 독창적인 견해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물질세계는 그 발전의 필연적 결과로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낳음으로써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된다. 주체철학의 세계에 대한 견해는 다음으로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그 합법칙성은 세계는 사람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사람을 위해 복무하는 세계로 전화되며 그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높아지는 방향으로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며 사람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의 영역이 날로 확대되며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되는 과정이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과정의 동인과 방향, 상승적 성격과 속도에 대한 새로운 해명으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것은 또한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입니다.≫(위와 같은 문헌, 13쪽)

주체철학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기초함으로써 세계를 물질의 세계로 보는 관념론적 관점과는 달리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밝혔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복무하게 차는 가장 일반적인 철학적 방법론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은 세계의 주인인 사람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 세계를 대하며 세계의 개조자인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의 변화발전을 대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그것은 사람을 위해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사람의 주동적인 활동의 견지에서 세계의 변화발전에 대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세계가 사람에 의해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과학적인 관점과 입장이다. 또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참다운 혁명적 관점과 입장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그 모든 내용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체계화되었으며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며 그 참다운 주인으로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견해와 관점, 입장을 전면적으로 밝혀준 완성된 철학적 세계관이다. 주체철학의 중요구성부분의 다른 하나는 주체의 사회역사관이다.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발전과 혁명의 합법칙성을 밝힌 독창적인 사회역사원리들을 준다. 주체사관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밝혀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위와 같은 문헌, 15쪽)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원리는 주체사관의 출발적 기초를 이룬다. 그것은 역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사회발전, 혁명발전을 주체적인 관점과 입장에서 이해하는 데에서 기초적인 문제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회적 운동은 물질적 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자연의 운동과 공통성을 가지지만 자체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가진다. 자연의 운동에는 주체가 없지만 사회적 운동에는 주체가 있다. 자연의 운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적 운동은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해 발생발전한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하려면 역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의 해명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주체철학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사회역사에 구현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해명하였다. 역사의 주체는 근로인민대중이다. 역사의 전진을 멈춰 세우고 되돌려 세우려는 반동적 착취계급은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역사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해 발전하며 역사가 발전하는 데 따라 역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진다. 인민대중은 역사의 주체이지만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만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사회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역사를 의식적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라는 것을 밝힘과 함께 그들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준다. 주체사관은 다음으로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사회역사원리를 밝혀준다.

≪인류사회의 발전역사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역사입니다.≫(위와 같은 문헌, 19쪽)

인류역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원리는 사람이 자주성을 가진 존재라는 원리를 사회역사에 구현한 것으로서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을 밝힌 것이다. 인민대중의 사회역사적 운동, 모든 혁명투쟁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은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포괄한다.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은 전역사적 기간에 걸쳐 진행되지만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조이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혁명을 통해 착취제도를 전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실현한다. 자연개조와 인간개조의 과업은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전면에 제기되고 훌륭히 실현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통해 그 종국적인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주체사관은 인류역사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밝혀줄 뿐 아니라 자주성을 옹호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준다. 자주적 입장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인 혁명투쟁 자체의 요구와 가장 자주적인 계급인 노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구현한 입장이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근본입장으로 된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독자성을 견지함으로써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함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는 가장 올바른 혁명적 입장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밝혀준다.



≪사회역사적 운동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입니다.≫(위와 같은 문헌, 27쪽)

사회역사적 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원리는 사람이 창조성을 가진 존재라는 원리를 사회역사에 구현한 것으로서 사회역사적 운동의 성격을 밝힌 것이다.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물질적, 문화적 재부를 만들며 새 제도, 새 생활을 창조한다. 인민대중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할 것을 요구하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인민대중의 창조의 역사이다.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투쟁을 동반한다. 특히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치열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투쟁 과정은 자기 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과정이다. 인민대중은 자연을 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키우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이 성장하는 데 따라 사회역사적 운동은 더욱 더 발전하게 된다. 인류역사에서 인민대중의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적 운동은 노동계급이 전개하는 공산주의운동이다. 이 운동에서 인민대중의 창조력이 가장 높이 발양되며 인민대중은 역사의 참다운 창조자로 된다. 주체사관은 사회역사적 운동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운동이라는 데로부터 혁명과 건설에서 창조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준다. 창조적 입장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옳게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입장이다. 그것은 혁명운동의 본성적 요구와 그 주객관적 조건을 반영해 인민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에 의거하고 구체적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입장이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방법으로 된다.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다음으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밝혀준다.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를 새롭게 밝혔읍니다.≫(위와 같은 문헌, 31쪽)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원리는 사람이 의식성을 가진 존재라는 원리를 사회역사에 구현한 것으로서 사회역사적 운동의 추동력을 밝힌 것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으로서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한다. 혁명투쟁에서 사람이 수행하는 역할, 그의 활동의 계급적 성격과 의지와 투쟁력을 규제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상의식이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의지인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상의식의 역할은 혁명운동이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며 특히 공산주의운동에서 비상히 높아진다.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기초해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는 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것은 인민대중을 의식화해 그들이 스스로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혁명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공산주의자의 본성적 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 그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주체의 사회역사관은 선행유물사관이 사회역사에 대한 관념론적 형이상학적 견해를 타파하고 해명한 사회역사에 작용하는 물질세계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시인하면서 사회역사에 고유한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하였다. 그것은 역사발전과 사회혁명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운동, 혁명운동의 근본원리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였을 뿐 아니라 혁명운동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 입장과 방법, 원칙까지 밝혀주는 참으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역사관이며 노동계급의 완성된 사회역사관이다. 사람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정확히 밝혀주는 혁명적 세계관인 주체철학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주

체의 수령관이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수령의 영도 밑에서만 개척되고 승리적으로 발전완성 될 수 있으므로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세계관에서 핵을 이룬다.

≪혁명적 수령관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입니다.≫

주체와 수령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발전과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다.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과 의사를 대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최고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수령의 사상과 의지는 인민대중의 조직적 의사이며 수령은 혁명적 .조직들을 창건하고 인민대중을 조직화하므로 인민대중의 사상적 단합과 조직적 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한다.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해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이론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워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며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주체의 수령관은 노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의 최고대표자이며 인민대중 전체를 조직 동원하는 최고 영도자로서의 수령과 인민대중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개인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수령의 역할문제를 역사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관한 일반적 논의에 용해시키는 그릇된 견해에 종지부를 찍었다. 주체의 수령관은 또한 수령이 인민대중과 혈연적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수령과 인민대중을 대립시키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수령의 역할을 거부하는 온갖 반동적이며 기회주의적인 견해에 결정적 타격을 주었다.

주체의 수령관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으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수령이 혁명운동에서 수행하는 결정적 역할이 수령의 혁명위업 계승자에 의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수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 나서는 근본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올바른 해답을 준다. 주체의 수령관의 중요내용을 이루는 것은 다음으로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이다.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은 수령을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무조건 철저히 구현해 나가는 자세와 입장이다.

이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며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의 혁명 사상을 신념화하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 나가는 후계자를 받들어 나가는 데에서 변함없이 간직해 나가는 것으로 표현된다. 주체의 수령관은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자세와 입장이 그 어떤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 깊이 체득하고 수령의 은덕을 뜨겁게 느낀 데에서 나오는 가장 숭고하고 공고한 사상감정이라는 것을 밝혀준다. 주체의 수령관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체계화됨으로써 혁명적 세계관, 노동계급의 철학의 핵이 밝혀지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참다운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사상정신적 풍모를 갖추고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 나가게 되었다. –

사람 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관 그리고 그 핵을 이루는 수령관을 밝힌 주체철학은 세계관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철학은 그 출발적 기초로부터 모든 내용과 구성체계, 사명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걸쳐 혁명적 변혁이 이룩되었으며, 노동계급의 철학은 그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되었다. 새로운 역사적 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주체철학은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철학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수기 위한 가장 우력한 무기이며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인류의 사상해방을 실현하고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해 나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올바로 이끌어 주는 위대한 혁명적 기치이다. 주체철학의 진리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은 이미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실천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었다. 오늘 주체철학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있다. 시대의 전진운동과 더불어 주체철학의 위대한 생활력과 견인력은 더욱더 커갈 것이다.

철학

정치사전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밝힌 세계관을 주는 학문. 철학은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세계관을 준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논증되지 않은≪세계관≫을 내놓고≪신≫을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요구하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은 또한 자연과 사회,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체로서의 세계를 통일적으로 고찰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세계의 개변적 측면 또는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과학과 구별된다. 철학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결합되어 있는 사상의식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사람의 근본요구와 지향, 계급사회에서는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따라서 계급성, 당성을 띤다. 사람의 요구, 계급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고찰한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지식의 체계가 바로 철학이다. 철학은 계급성을 가지므로 진보적, 혁명적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회발전을 다그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진보적, 혁명적 철학과 반동적, 보수적 계급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데 반영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는데 이바지하는 반동적, 보수적 철학으로 나누어진다. 철학이 계급적 요구를 반영한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계급이 다 자기의 철학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예사회에서의 노예와 봉건사회에서의 농노들은 가혹한 생활조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계급적 요구를 담은 철학사상을 내놓을 수 있는 이론적 활동을 벌일 수 없었다. 또한 그들은 노예제도와 봉건제도를 교체하게 될 새로운 사회제도의 담당자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는 세계관을 내놓을 수 없었다. 피착취계급으로서는 오직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계급만이 미래 사회주의 , 공산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 계급으로서 자기의 계급적 요구를 반영한 철학을 독자적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철학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인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히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에 대한 통일적인 견해와 관점, 입장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해명하는 것은 철학뿐이다. 철학은 개별과학들과 그 대상에서 구별되지만 그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철학은 개별과학발전의 성과에 토대하여 발전한다. 전체에 대한 정확한 견해는 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토대한다. 철학이 주는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에 대한 견해는 세계의 개별적 영역에 대한 개별과학적 지식에 토대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철학은 개별과학의 사상이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전체에 대한 일반적 견해는 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연구를 위한 지침으로 된다. 철학은 개별과학들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그 연구방법을 제공하며 그 성과에 대한 이론적 해석의 지침을 준다. 철학은 이와 같이 사상의식의 한 형태로서 개별과학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사람의 요구, 계급적 이해관계의 변화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람의 창조적 능력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내용과 역할이 변화발전한다.

사람의 요구와 계급적 이해관계, 창조적 능력의 변화발전은 사회적 실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사회제도의 성격에 의존하므로 사회적 실천과 사회제도의 변화발전에 따라 철학은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철학은 고대 노예사회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원시사회에서는 사람의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의 발전수준이 매우 낮았으므로 자연과 사회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질 수 없었으며 세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세계관이 나올 수 없었다. 당시에는 다만 환상적인 종교적 세계관이 지배하였다. 원시사회에 비하여 자연에 대한 사람의 지배 정도와 창조적 능력이 발전한 고대 노예사회에 이르러 자연에 대한 초보적인 과학적 지식과 함께 비로소 철학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대 노예사회에서는 지식의 폭이 넓지 못하고 그 심도가 깊지도 못하였으므로 철학과 개별과학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최초로 발생한 철학은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철학이었다. 이 철학은 당시 반동적인 귀족노예소유자계급의 지배를 반대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킬 것을 지향한 진보적인 신흥 노예소유자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나온 것이었다.

이 철학은 반동적인 귀족소유자계급의 지배를 신성화한 환상적인 종교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려는 요구로부터 출발하여≪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하였다는 종교적 미신을 반

대하고 세계의 시원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는 유물론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것은 사람도 포함하여 세계의 시원을 물, 불, 흙 또는 공기로, 나아가서 물질적인 기 또는 원자로 보았으며 사람의 영혼도 그와 같은 시원물질의 한 상태로 보았다. 최초의 철학들은 또한 세계의 모든 사물현상의 운동이≪하느님≫의 의사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종교적 견해를 반대하고 그것들이 자체의 원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 철학은 사람의 감각과 사유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견해들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긴 하였으나 과학적으로 근거지어지지 않고 세부에 걸쳐 논증되지 않은 직관적이며 자연발생적이며 소박한 유물론적, 변증법적 견해였다. 그리고 그것은 반동적인 귀족노예소유자계급의 지배와 종교를 반대하고 자연을 인식하고 개조하는데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진보적 역할을 하였으나 역시 신흥 노예소유자계급의 철학으로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계급적 제한성을 가졌다. 노예사회에서 유물론철학이 발생하자 반동적인 귀족노예소유자계급은 저들의 계급적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관념론 철학을 들고 나왔다. 관념론철학은≪하느님≫ 대신에≪관념의 세계≫와 같은 초자연적인 정신적 실체에 의하여 현실세계가 창조되었다는 견해로서 종교에 합리적인 외피를 씌운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동적인 귀족노예소유자계급들은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하며 사람의 운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형이상학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최초에 발생한 철학들은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의 해명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근본문제로 삼았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유물론과 관념론의 두 조류로 갈라졌다.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두 조류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철학의 영역에서는 계급투쟁의 반영으로서의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대립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지난 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역사였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73쪽)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의 투쟁과정에서 관념론과 형이상학은 자체의 비과학적이며 황당한 내용을 더욱더 교묘하게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유물론과 변증법은 사회적 실천의 역사적 경험의 일반화와 자연과학의 성과에 토대하여 점차적으로 심화발전되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방의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봉건사회에 이르러 세계가 물질적인≪기≫로 이루어졌으며 대립물의 투쟁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철학적 견해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당시 자연과학의 발전수준이 낮았던 사정과 관련하여 소박성을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중소양반지주계급의 철학으로서≪하느님≫의 의지에 의하여 사회생활과 발전이 결정된다는 관념론적 견해를 주장하고 봉건제도를 정당화하는 계급적 제한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봉건사회에서는 초자연적인 정신적 실체인≪이≫에 의하여 세계가 창조되고 지배되며 사람의 운명이 규제된다는 반동적인 관념론철학이 정권을 쥔 대양반지주계급의 철학으로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 봉건시대에 유럽에서는 철학이 신학의 종복으로 되어 기독교의 교리를 합리화하는 데 전적으로 복무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였다. 부르조아혁명 준비기와 수행기 신흥 자본가계급의 철학은 봉건제도와 이를 신성화한 종교와 관념론을 반대하면서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지고 의식은 물질의 속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람은 감성적 경험과 이성적 사유를 통하여 객관적 진리를 인식하고 과학적 지식의 힘으로 자연을 지배하게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반봉건투쟁에서 진보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철학은 실천활동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철학

은 물질의 운동에서 역학적 운동만을 인정하고 사물의 운동의 원인을 사물 자체의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적 충격에서 찾았으며 질적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양적 변화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이 철학은 기계적, 형이상학적 유물론으로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사회적 관계와 분리시켜 고립적으로 고찰하여 사람의 자기보존의 욕망이나 이기심과 같은 본능에서 본성을 찾았으며 사회발전이 인민대중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이성,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봄으로써 사회역사적 견해에서 의연히 관념론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제한성은 역학만이 주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사물현상을 상호 연관 밖에서 고립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당시 자연과학발전의 미숙성, 사적 소유의 불가침성과 기업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신흥 자본가계급의 개인이기주의적 요구와 관련된 것이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립되어 가던 시기에 봉건지배세력과 타협한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반영한 철학은 관념론으로 떨어졌다. 이 철학은 자연과 사회, 사람을 초자연적인 정신적 실체인≪절대이념≫발전의 필연적 산물이라고 함으로써 당시의 봉건군주제도가 합리적이며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는 것을 논증하려고 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막으려고 하였다. 이 철학은 당시 유물론의 기계론적, 형이상학적 제한성을 반대하면서 변증법을 심화시켰으나 그것은≪절대이념≫의 논리적 발전과정을 밝힌 관념변증법이었으며 물질세계의 현실적 반전과정을 왜곡하여 도식화한 것이었다. 17~18세기 부르조아 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에는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개별과학들이 독자적인 부문과학으로 체계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철학은 개별과학들의 근본원리를 제시하며 따라서 개별과학 위에 군림하는≪과학의 과학≫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였다.

이리하여 철학은 현실적인 역사의 근본원리를 발기는 역사철학, 법학의 근본원리를 밝히는 법철학, 자연의 근본원리를 밝힌 자연철학들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전체 포괄적인 체계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철학은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고안해낸≪원리≫를 보편적인 진리로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의 사물현상들을 해석함으로써 억측과 허구로 찬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과학의 과학≫으로서의 철학은 개별과학들이 발전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과 입장을 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철학에 의하여 대치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을 지닌 것이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립되자 부르조아철학들은 예외없이 반봉건투쟁시기에 가졌던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들을 모조리 집어던지고 자연과학의 성과들을 왜곡하며 불가지론을 설교하고 자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반동적인 관념론철학으로 굴러떨어졌다.

이와 같은 비과학성과 반동성은 현대 부르조아철학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세계가≪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중세 종교철학을 되풀이하는 신토마스주의와 같은 개관관념론적유파, 세계의 근원을 삶의 주관적 의지에서 찾는 생의 철학, 사람을 세계와 동떨어진 고립되고 무능력하고 불안의 기분이 고유한 존재로 보면서 비애와 염세, 극단한 개인주의를 고취하는 실존주의 철학, 객관적 세계를 순수 경험의 산물로 보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곧 진리라고 하면서 치부와 향락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본가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합리화하는 실용주의철학, 세계의 본질은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철학을 거부하고 실증적인 개별과학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 과학을 인간경험의 반영으로 보고 철학의 과업을 논리적 분석에 귀착시키는 신실증주의와 같은 형형색색의 반동적인 주관관념론적 철학들이 나타났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지배를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최초의 과학적인 세계관으로서 맑스주의철학이 발생하였다. 이 철학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지배적인 관념론과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과학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를 근본문제로 삼고 그 해결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유물론과 변증법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고 이것을 사회역사연구에 확장함으로써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확립하였다. 맑스주의철학은 세계의 물질성을 논증하고 자연, 사회, 인간사유의 가장 일반적인 발전

법칙을 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실천이 인식의 기초이며 진리의 기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그것은 또한 사회의 변화발전의 궁극적 원인을 생산방식의 변화에서 찾으며 인민대중을 역사의 창조자로, 계급투쟁을 역사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유물사관을 확립하였다. 맑스주의철학에 의하여 인류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밝혀 주는 과학적 세계관이 확립되었다. 맑스주의철학의 창시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의 철학을 가지게 되었으며 철학이 착취제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부터 근로인민대중의 계급해방을 위한 투쟁의 무기로, 세계의 혁명적 변혁의 무기로 전환되게 되었다. 그런데 철학이 사람의 운명문제에 정확한 해답을 주어야 할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면, 세계의 존재와 운동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줄 뿐 아니라 사람은 어떤 존재이며 사람과 세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야 한다.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재배와 개조대상인 객관적 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지배하고 개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인류의 철학적 사유 발전의 필연적 요구로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역사무대에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로운 역사적 시대인 주체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었다.

철학 앞에 나선 이 중대하 역사적 과제는 주체철학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었다. 주체철학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전일적인 세계관으로 완성하였으며 **김정일**이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집대성한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철학사상이다. 주체철학은 물질과 의식의 관계 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된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독창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리고 주체철학은 사람이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주고 주체의 철학적 원리를 확고히 근거지었다. 주체철학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사람의 본질적 특성의 해명에 기초하여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발전되는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세계에 대한 견해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입장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사람 위주의 철학적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주체철학은 다음으로 역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사회역사관확립에서 기초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라는 사회역사원리를 해명하였으며 주체의 운동인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과 성격, 추동력을 밝힌 사회역사원리을 역사발전을 주체인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보는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였다.

이리하여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역사관이 창시되었다.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역사관을 밝힌 주체철학에 의하여 철학사상발전에서는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었다. 주체철학에 의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로부터 그 내용과 역할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근본적 변혁이 이룩되었다 .그리하여 인류의 철학사상은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을 밝히는데 머무른 철학 대신에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고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철학으로의 비약을 이룩하게 되었으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은 가장 높은 단계로 발전완성되었다. 주체철학은 우리시대,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적 세계관으로서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조들을 철저히 짓부수면서 자주와 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해 나아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올바로 이끌어주고 있는 투쟁의 기치가 되었다. →철학의 근본문제. 유물론. 관념론. 변증법. 형이상학. 맑스주의철학. 주체철학.





사상계의 거장

구국전선 / 백 봉 흠, 주체89, 3월 11일

영명하신 **김정일**영수는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로 공인되어 세계만민으로부터 ≪사상계의 거장≫, ≪인류의 태양≫으로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고 계신다.

그분의 위대한 사상이론은 21세기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은 사회역사발전에서 어둠을 밝히는 등대, 항로를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오늘 인류는 **김정일**영수의 사상과 이론을 향도이념으로, 지침으로 하여 세계를 개조변혁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분의 탁월한 사상이론은 그 폭과 깊이, 과학성과 진리성, 풍부성과 독창성에 있어서 현시대 뿐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역사상에 출현한 어떤 사상과 이론도 인류의 미래까지 담보하는 영원한 생명력을 지닐 수 없었다. 그것은 선행된 사상이론들이 어느 것이나 다 시대적 한계성과 이론적 미숙성을 극복할 수 없었기때문이다.

김정일영수의 사상이론의 위대성은 바로 시대성을 기조로 하고 진리성과 독창성, 풍부성과 심오성이 삼위일체를 이룬 시대사상의 최고봉으로, 인류의 영원한 향도이념으로 빛을 뿌리고 있는데 있는 것이다.

김정일영수의 위대성은 곧 사상이론의 위대성이며 그분께서 지니신 절대적 권위는 무엇보다도 사상이론적 권위라고 할 수 있다. 현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사상이론가, 사상계의 거장으로서의 **김정일**영수의 위대성은 그분께서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시대와 역사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포착하시고 그에 명석한 과학적 해답을 주는 탁월한 사상이론을 끊임없이 제시하시어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상승궤도로 견인해 가시는데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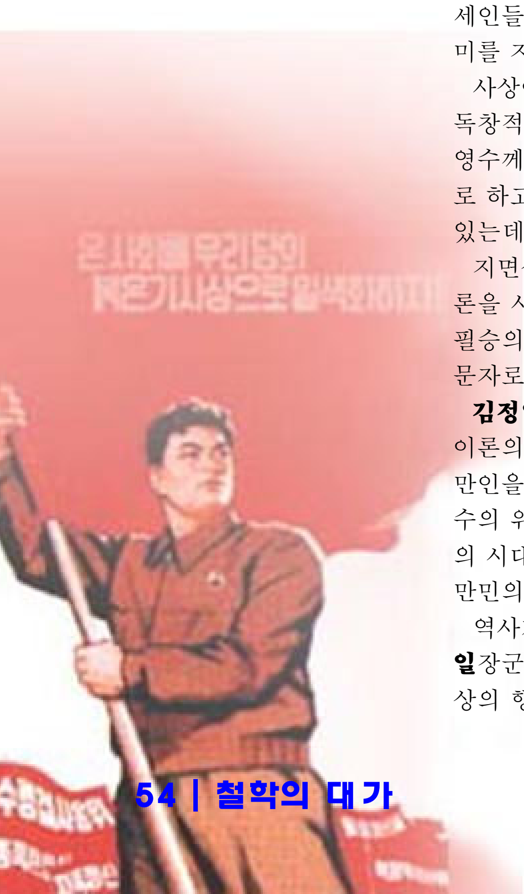
그분께서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사회주의를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놓으시고 인류에게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새겨주신 것은 그 대표적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명저들을 연이어 발표하시어 구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붕괴의 원인과 역사적 교훈을 심층분석하시고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밝히심으로써 좌절된 사회주의나라 민중에게 재생의 활로를 열어주신 그분의 이론적 공적을 두고 세인들이 태양의 인력권에서 벗어나려던 지구를 본궤도에 되돌려세운 것과 같은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역사적 공적이라고 격찬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상이론의 천재, 거장으로서의 **김정일**영수의 위대성은 그분께서 일찍이 학창시절에 벌써 독창적인 사상론을 주창하시고 수령론을 창시하신 데서 더욱 뚜렷이 실증되고 있다. **김정일**영수께서 저술발표하신 저작들을 체계적으로 탐독, 연구분석하고 음미해보면 사상론을 기초로 하고 수령론을 중핵으로 하여 새로운 원리와 명제들이 도출되고 심오한 이론이 전개되어있는데 그분의 사상이론의 근본특징이 있음을 잘알 수 있다.

지면상 사상론과 수령론에 대한 내용소개는 생략한다. 하지만 세인들이 **김정일**영수의 사상론을 사회변혁운동의 승리를 보장하는 만능의 보검으로, 전인류를 이상사회에로 견인하는 필승의 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수령론을 창출하신 그분의 공적에 대해 인류사상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길 특기할 업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만 지적해도 충분할 것이다.

김정일영수의 사상이론은 숭고한 인간애와 조국애, 민족애로 일관되어 있다. 그분의 사상이론의 근저에 깔려있고 전반에 관통되어있는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이념, 이것이 바로 만인을 매혹시키고 끌어당기는 사상적 향기로,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영수의 위대한 사상이론이 오늘 진보적 인류가 한결같이 공감하고 따르는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시대사상으로 빛나고 있는 비결도, 그분께서 현시대의 가장 권위있는 사상이론가로 세계만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기본요인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희세의 철인,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로 명망높으신 영명한 천재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만이 지닌 최상최대의 자랑이고 영광이며 무상의 행복이다.



새 세기를 주도할 김정일사상

구국전선 / 김 성 필, 주체90, 1월 1일

역사의 새 시대는 위대한 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전진한다.

김정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새세기를 맞는 인류가 역사의 진로를 바로 개척해 나가기 위한 출발적 전제로 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은 한마디로 영세불멸의 주체사상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지니시고 계시는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인간옹호사상이며 가장 숭고한 인간사랑의 사상이다.

사회변혁운동의 이치를 밝힌 사상과 이론은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상에 출현한 그 어느 사상도 주체사상처럼 변혁운동을 민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투쟁으로 정의하고 제기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실현하는 과학적 방도를 완벽하게 밝히지 못했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혁명을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최대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김정일**영도자님의 사랑의 철학이라는 점에 특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술하신 저작들을 보면 누구나 그분의 사상이 민중을 하늘처럼 믿고 떠받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민중숭배이념이며 모든 것을 민중을 위해 바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신위민≫의 철저한 민중봉사이념임을 실감할 수 있다.

민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존엄있는 존재,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 그분의 철학적 세계관이며 민중의 참된 충복으로서 한평생을 민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중이며 민중이 모든 것의 스승이라는 것이 그분의 일관한 지론이다.

민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면 그것이 곧 사상이 되고 노선과 정책이 된다는 것이 그분께서 사상이론활동과 정책작성에서 시종여일하게 견지하시는 근본원칙이고 방법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중중시, 민중우선의 숭고한 애민사상은 민중을 위한 일에서는 타산을 앞세우지 말며 민중을 위해 국가가 돈을 많이 쓰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손실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김정일**식 독특한 계산방법에 집약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그것은 애민정치로 구현되고 민중적 시책으로 펼쳐져 민중의 행복으로, 웃음꽃으로 만발하고 있다.

오늘 세인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과 이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 사고의 귀결로만 볼 수 없다.

세계를 둘러보면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 ≪**김정일**주의연구센터≫, ≪**김정일**저작연구회≫등을 결성하고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과 이론을 광범위하게 연구보급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인간해방의 종국적 승리를 이루어내려는 진보적 인류의 일치된 지향과 의지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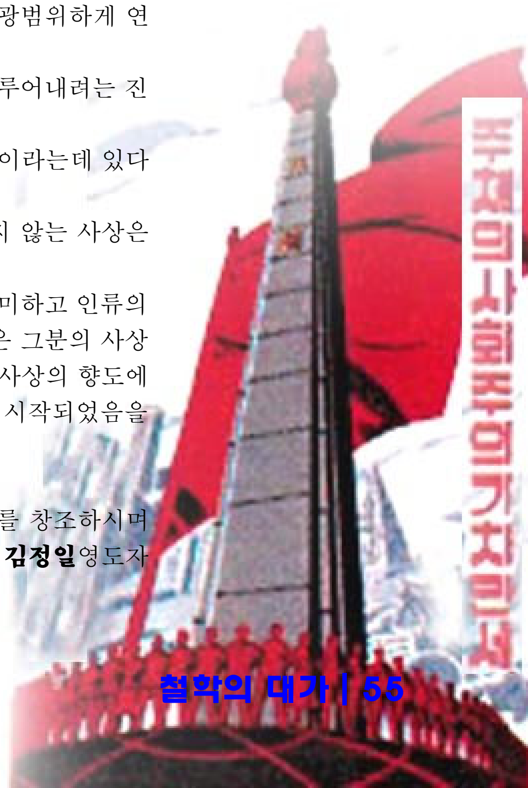
김정일사상의 위대성은 바로 민중이 향유하고 실천하는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사상이라는데 있다고 확신성있게 말할 수 있다.

≪실현되지 않는 사상은 비누거품과 같다≫는 말과 같이 민중이 수용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상은 생명력이 없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상이 오늘 세계적 판도로 급속히 파급되어 시대를 풍미하고 인류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그분의 사상이 시대를 밝히고 이끄는 지도사상의 지위에 확고히 자리매김되었으며 위대한 **김정일**사상의 향도에 의해 세계가 개조변혁되고 역사가 전진하는 새로운 시대, 영광찬 **김정일**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21세기를 **김정일**세기로 보는 참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안다.

세계를 둘러볼수록 위대한 사상의 빛발로 시대를 밝히시고 사상의 힘으로 새 세계를 창조하시며 탁월한 영도력과 숭고한 덕망으로 천하를 얻고 평정하시는 만고절세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가슴부풀고 힘과 용기가 샘솟는다.



21세기를 조명해 본다

구국의 소리 / 주체90, 3월 7 ~ 9일

인류는 커다란 기대와 희망 속에 새 세기, 21세기의 기슭을 떠났습니다. 21세기는 어떤 세기로 될 것인가? 누구나 생각해보는 문제라 하겠죠.

윤정원씨 모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인류는 격동에 찬 20세기를 보내고 대망의 세기, 21세기를 기쁨과 기대 속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세기에 세계는 과연 어떻게 변화발전하겠는가, 21세기는 어떠한 세기로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음에 대답을 얻고자 나름대로 새 세기를 조망해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 위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흔히 사람들은 역사는 곧 과거와의 대화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앞날을 내다보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하죠. 이런 맥락에서 먼저 20세기가 어떤 세기였는가에 관해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네. 돌이켜보면 20세기는 많은 사건들과 세계를 진감시킨 사변들, 미증유의 현상과 변화들로 엮어진 말그대로 사연많은 세기였었죠. 그러나 20세기의 기본특징, 기본흐름을 놓고 볼 때 20세기는 한마디로 자주성의 시대가 펼쳐지고 자주의 물결이 세계적 판도로 되고 있으면서 하나의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된 영광스런 세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하에서 자주성을 박탈당해온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게 됐는데요. 다시말해서 오랫동안 버림을 받던 민중이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역사발전을 주도하는 자주시대가 펼쳐진 것이죠. 정말 자주시대의 도래, 이것은 전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20세기의 기본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사회자 : 네, 특히 20세기 인류사적 의의를 가지는 대사변과 위대한 업적은 자주시대의 지도이념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윤정원 : 그렇죠.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서 자주성을 위한 민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구요.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셨어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혁명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고 주체 19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동총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셨어요.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인류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민중들의 공통된 염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는 현 시대 변혁운동발전의 지도사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원 : 네, 그렇죠. 변혁운동이 민족국가 단위로 다양하게 벌어진 20세기 자주시대는요, 매개나라 민중들이 변혁운동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주인노릇을 옳게 할 것을 요구했어요. 위대한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길을 밝혀줌으로서 매개나라 민중들이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변혁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했구요. 자기의 주견과 신념에 따라 자기나라 실정에 걸맞는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자체의 창조력을 동원해서 변혁운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급기야 역사적 발전과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 민중들이 승리의 자신감을 갖고 민족해방,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게 됐죠.

사회자 : 네, 그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따라 배우는 사업이 세계적 판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사실만 놓고 봐도 잘 알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대륙과 지구촌 거의 모든 나라들에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조



직되어 있구요, 국제적 지역적 조직까지 정연히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변혁운동과 새 사회건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반 사실들은 20세기가 바로 주체사상이 공인된 시대적 사조로 되고 인류가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이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어 온 세기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20세기야말로 만민신봉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셔서 자주시대 변혁운동을 일대 앙양으로 끌어올린 위대한 **김일성**세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자 :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세기가 자주의 시대가 개척되고 실현되어 온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류의 자주위업이 세계적 판도에서 실현되고 승리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네, 그렇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민족의 운명은 올바른 사상과 탁월한 수령의 영도가 없이는 개척되어 나갈 수 없는데요, 인류의 자주위업도 마찬가집니다. 오늘 우리 민족과 인류는 영광스럽게도 사상이론의 거장이시고 영도의 거장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행운을 지녔거든요. 아시다시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사상도 영도도 풍모도 똑같은 절세의 위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탁월한 예지와 혁명성은 사회주의 재건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실증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구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재건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회주의운동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네, 그래요. 그건요 사회주의 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라는 평양선언 을 지지하는 진보적 정당들이 세계적 판도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정원 : 네, 그렇죠. 1992년 4월 평양선언 이 채택될 때에 여기에 서명한 정당은 70개에 불과했어요. 그후 6개월 후에는 140개로 늘어났어요. 1년 후에는 170개, 오늘은 무려 251개에 달하고 있어요. 세계 진보적 인사들은 과거에는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벌어졌다면 오늘 사회주의운동은 그 구심점이 평양이라고 하면서 이북을 세계변혁운동의 성지, 사회주의 운동의 중심지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진보적 정당들의 투쟁의 기치, 투쟁강령으로 되고 있는 평양선언 은 21세기에도 **김정일**장군님의 존함과 함께 사회주의를 위한 진보적 인류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 주는 고무적 기치로 찬연히 빛날겁니다.

사회자 : 네, 돌이켜보면 피압박민중은 장구한 역사적 기간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지만 착취사회에서는 그걸 실현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윤정원 :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주의에 기초한 착취사회에서는 민중의 자주성이 절대로 실현될 수 없어요. 민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려면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로부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로 넘어가야 한다는게 인류발전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때문에 사회주의가 재건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 건 필연적이고 따라서 21세기에 사회주의재건운동이 더욱더 활발히 벌어져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리고 21세기를 조명해보면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인류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세계적 판도에서 벌어지고 빛나게 실현될 영광찬 세기로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오늘 진보적 인류는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고매한 덕성을 한몸에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서 그분의 영도따라 자주위업의 승리를 이룩할 결의에 충만되어 있어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 주체사상이 세계에 급속히 파급되어 시대를 풍미하고 인류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을 향도하고 있기에 21세기에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세계가 개조변혁되고 역사가 진전되고 발전되어 나가는거 이건 불을 보듯 분명한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럼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희망찬 21세기는 **김정일**세기, **김정일**시대로 될 것이구요. 우리 민족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셨기에 머지 않아 이 땅위에 통일강성대국을 우뚝 세우고 만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21세기는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세기, 자주의 세기로 될 것이라는 얘기였습니다. 21세기는 세계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 계시어 영광 빛나는 세기로 될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가

구국전선 / 강 철 규, 주체90, 5월 11일

오늘 세인들은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세계 정치의 원로로, 사상이론의 대가로, 유명한 철학가로 높이 칭송하면서 우러러 경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민연맹 가리브 네와즈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일성**동지께서 민중이라는 토양위에 주체사상의 씨를 뿌리고 키워오시었다면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무성한 숲으로 가꾸시고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었다.

그분은 철학적 조예를 천품으로 지니신 세계 철학계, 사상계의 으뜸가는 정치철학가, 사상이론가이시며 정치의 대가, 영도의 거장이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치를 하자면 철학을 알아야 한다.

지도자의 지도수준과 지도능력은 그가 어떤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올바른 정치철학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신념이 있고 권위있는 정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도자는 갈팡질팡하는 정치, 민중을 떠나 둥둥 떠다니는 정치를 하게 된다.

사상이론의 대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은 세계가 공인하는 유명한 철학가이시다.

유명한 철학가로서의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은 철학적 조예가 깊은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뛰어난 슬기와 예지를 천품으로 지니신 그분께서는 학창시절부터 남달리 철학적 문제들에 흥미를 가지고 깊이 사색하고 탐구하기를 좋아하셨다 한다.

그분께서는 대학시절에 벌써 명저 ≪대학생들 속에서 혁명적 세계관을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세계관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견해를 밝히시었다.

그분께서는 저작에서 사람이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떤 입장에서 대하여야 하는가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철학의 대가로서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시었다.

유명한 철학가로서의 **김정일**영도자님의 위대성은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주체사상의 대가이시고 뛰어난 철학가이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만이 천명할 수 있는 유명한 정식화이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또한 현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새로운 원리들과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풍부화하고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킴으로써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숭고한 충정과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철학가, 위인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저작들인 ≪주체사상에 대하여≫,≪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등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새로운 원리들과 내용들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었다.

예하면 위대한 저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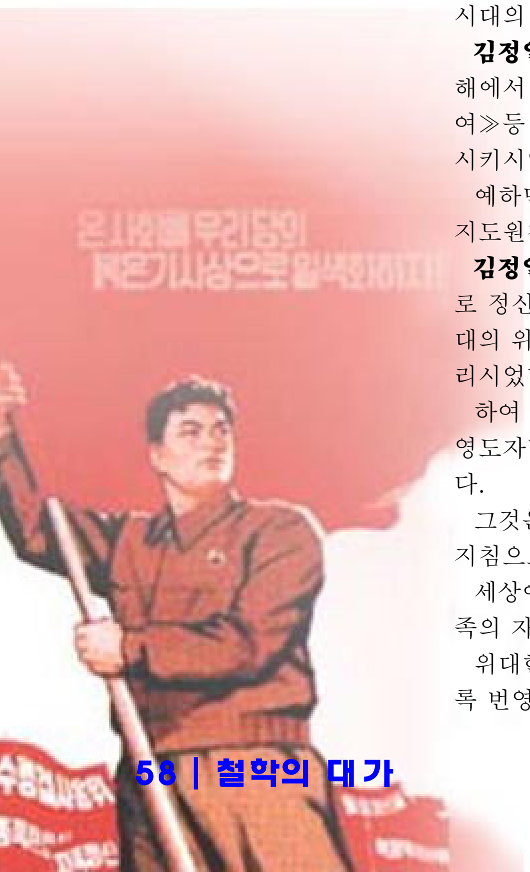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단순히 사상이론활동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정신무장시키는 사업과 대외선전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을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시어 위대한 정치가, 철학가로서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

하여 오늘날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중의 토양위에 씨앗을 뿌리고 키워온 주체사상은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무성한 숲으로 자라나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고 있다.

그것은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적 판도에서 연구보급되고 수많은 나라 정당들이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변혁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세상에서 으뜸가는 철학가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신 **김정일**영수님을 모신 것은 참으로 민족의 자랑이고 무상의 영광이며 대행운이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고 있기에 우리 조국은 반드시 통일되고 무궁토록 번영할 것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 정식화하신 시대의 지도사상, **김일성**주의

구국전선 / 진 정 철, 주체90, 8월 11일

사람들은 흔히 사상을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상은 시대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다.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출현한 선진사상, 지도사상은 시대의 흐름을 대표하는 기본사조로서 사회역사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구한 세월의 연륜을 새기며 흘러온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은 사상이 시대를 낳고 선진사상의 지도적 역할에 의해 사회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민중의 자주성이 실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사상이론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자리매김되야 할 업적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수령이 창시한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여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선포하는 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역사적 근원에서부터 그 이론적 내용과 구조적 체계에 이르기까지 사상이론 전반에 걸쳐 심층적인 분석과 완벽한 습득을 성취한 수령의 걸출한 후계자만이 실행할 수 있는 대업이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집대성하고 정식화했던 엥겔스와 스탈린의 공적이 그들이 이루어낸 특기할 사상이론적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라 할 것이다.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수님에 의한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는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준 역사적 사변이었다.

주체63(1974)년 2월19일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여 선포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조선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었다.

이날 그분께서는 전국당선전일꾼강습회장에 나가시어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중대 결론을 하시었다. 바로 이 역사적인 결론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사상이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강령이 선포되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역사적인 결론에서 **김일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시었다.

> ≪**김일성**주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이론 및 방법의 체계입니다. 다시 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입니다.
>
>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김일성**주의가 선행한 노동계급의 혁명이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 **김일성**주의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 지도이론, 지도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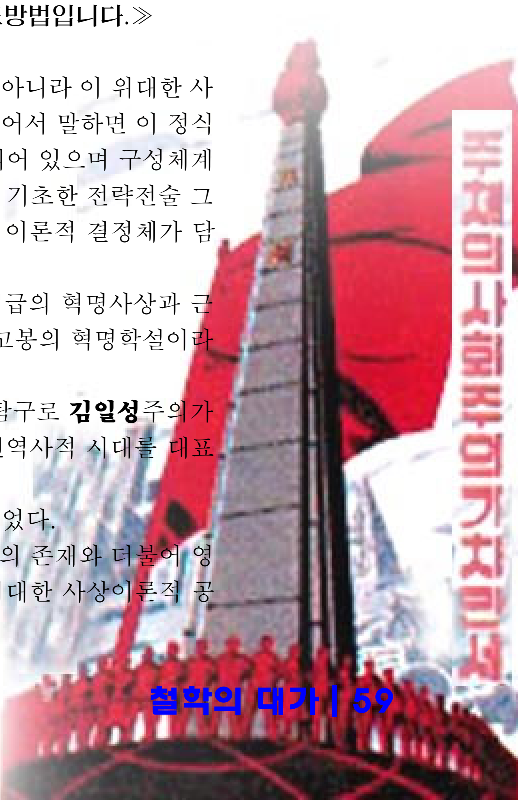
이 명제는 **김일성**주의의 진수와 내용, 그 구성과 특징을 함축해 체계화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위대한 사상이 선행된 노동자계급의 혁명사상과 구별되는 본질적 특징을 밝혀주고 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 정식화에는 **김일성**주의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구성체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여 민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이론과 민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 그리고 민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영도이론과 영도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적 결정체가 담겨져 있다.

이 정식화는 또한 **김일성**주의가 그 기초원리와 구성체계, 내용에서 선행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며 지도사상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최고봉의 혁명학설이라는 이해를 준다.

사상이론의 영재이신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이렇듯 탁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김일성**주의가 우리 시대의 요청을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혁명사상이며 현시대와 인류의 전역사적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한 지도사상임을 확증하시었다.

현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오늘 **김일성**주의는 현시대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김일성**주의야말로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할 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신 여기에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거대한 사상이론적 공적이 있다.





김정일총비서께 주체사상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평양 주체 87년 4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현 세계에서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서 12일 채택되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으며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성대히 진행된 현 세계에서의 자주와 평화에 관한 주체사상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자주위업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며 스승이신 당신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따라 인류공동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각하께서 가리키시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세계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 시대와 력사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는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력사적인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김일성**주석께서 조선인민의 수령으로서뿐아니라 자주시대의 위대한 령도자, 진보적인류의 자애로운 스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존경하는 총비서각하는 천재적인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여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수령영생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륜리도덕의 최고화신이시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습니다.

각하께서 수많은 귀중한 저서들에서 밝히신 위대한 사상리론들은 오늘과 같은 혼탁된 정치풍파속에서 자주위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자주, 평화, 련대성의 만능의 보검으로 되고있습니다.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반동들의 집요한 전쟁위협과 경제봉쇄, 혹심한 자연재해를 성과적으로 이겨내며 승승장구하는 주체조선은 자주위업의 불패의 성새로서 우리 모두를 무한히 고무해주고있습니다.



국제주체사상토론회

진정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는 인류자주위업의 운명이시고 위대한 기치이시며 승리의 상징이십니다.

빛나는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한몸에 체현하신 당신을 자주위업의 위대한 령도자로 모신것은 인류의 행운이며 우리 모두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바야흐로 밝아오는 21세기는 각하의 령도따라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승리하는 세기, **김정일**세기로 빛날것입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진리성을 확



신하고 그 승리를 락관하는 우리들의 한결같은 신념이고 순결한 량심입니다.

하기에 우리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채택한 뉴델리선언에서 태양절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최대의 국제적명절로 기념하는것을 전통화하며 존경하는 **김정일**각하를 21세기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시고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갈것을 시대와 력사 앞에 엄숙히 선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비서각하

지금 우리들의 가슴은 력사의 엄혹한 소용돌이속에서도 사소한 주저와 동요, 변색과 변질도 모르는 정의인, 량심인으로서 언제나 주체사상만을 신봉하고 따르려는 확고한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들은 토론회에서 주체사상을 드팀없는 신념과 량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순결성을 옹호고수하며 주체사상 연구와 보급을 더욱 높은 단계에서 활성화하고 실천에 구현함으로써 시대 선각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운 조선의 고귀한 경험을 널리 선전하며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떨쳐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유훈대로 조선인민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련방제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성취하리라고 믿으면서 각하께서 지난해에 내놓으신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날과 더불어 더욱 높아질것입니다.

주체사상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인류자주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위하여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세계적판도에서 김정일로작연구보급

(평양 주체 87년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이 세계적판도에서 광범히 연구보급되고있다.

최근년간 세계 30여개 나라들에서 **김정일**동지로작연구조직들이 새롭게 결성되였다.

일본, 나이제리아, 뻬루에서는 전국적인 연구조직이, 파키스탄, 인디아, 영국, 니까라과 등 나라들에서는 연구소조들이 조직되였다.

네팔, 몽골,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는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에 대한 국제적 및 전국적인 토론회, 련합토론회들이 진행되고있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 베닌건설로동당, 기네통일진보당,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우크라이나공산당에서는 그이의 로작들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고 여러 로작들을 당내필독문헌으로 규정하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의 출판보도물들도 그이의 로작들을 특집보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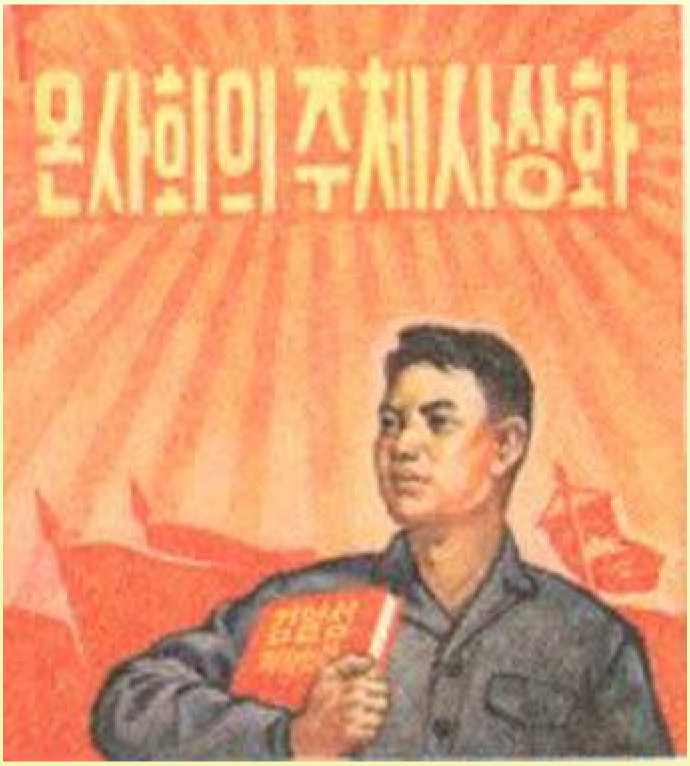
로작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도덕의리이다≫주체84(1995) 년 12월 25일은 발표된후 3달기간에만도 세계 60여개 나라 200여개의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또한 로작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 주체85(1996)년 7월 26일 발표되여 2년간 세계 50여개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단체들에 연구보급되였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김정일**동지의 로작들은 년평균 400여회에 걸쳐 보도되고있으며 유고슬라비아, 라오스를 비롯한 세계 100여개의 출판기관들에서 41개의 민족어로 53만 5,000여부 출판보급되였다.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한 불멸의 업적



(평양 주체 88년 3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

31일부 신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 17돐을 기념하였다.

≪로동신문≫론설의 필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진수를 견결히 고수해오시였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지난 5년간은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는데 대하여 쓰고있다.

지난 5년간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업적은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시고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견결한 옹호자로 키우시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신데있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특히 지난 5년간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과학성과 혁명성, 독창성을 뚜렷이 밝히고 그 보물고를 끝없이 풍부화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이 나날에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주체사상의 혁명적진수를 빛나게 고수해오시였다고 론설은 지적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은 주체사상이 저들의 ≪1극세계≫에 파렬구를 내는 사상이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견인력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주체사상을 끝없이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들은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는 무자비한 철추로 되고있다.

희세의 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주체사상의 견인력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것이다.



총비서로작을 세계적판도에서 출판보급

(평양 주체 88년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세계 광범한 출판보도계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출판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김정일령도자의 로작들은 최근년간 41개의 민족어로 54만여부나출판되였다.

지난해에만 하여도 꾸바, 로씨야, 라오스를 비롯한 세계 20여개 나라의 출판기관들에서 그이의 로작들을 17개의 민족어로 출판하였다.

여러 나라 출판기관들은 로작출판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2월의 명절을 비롯한 조선의 주요기념일들을 계기로 이 사업을 더욱 활발히 벌려 수많은 단행본들을 출판하였다.

단행본들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를 모시고 머리글에서 그이의 로작들은 인류사상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대기념비적저작들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사상리론의 시대성과 과학성, 정당성과 독창성 그리고 비상한 설득력과 철의 론리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김정일**령도자의 로작들을 대대적으로 특집보도하고있다.

최근년간 해마다 평균 200여개의 출판보도물이 경애하는 그이의 작들을 수백여차에 걸쳐 보도하였다.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이 **김정일**령도자의 초상화와 혁명활동모습을 지면과 화면에 모시였으며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흠모가요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그이의 로작들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삶과 투쟁의 지침≫, ≪자주시대 당건설의 귀중한 교과서≫, ≪사회주의력량의 위대한 사상리론적무기≫, ≪진보적인민들의 영원한 고무적기치≫라고 지적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이시야말로 21세기를 이끄실 주체의 태양이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세계는 그이의 사상으로 숨쉬며 전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이 편지



이북을 방문한 주체사상신봉자 외국대표단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

(평양 주체 88년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이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서거 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한 우리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은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김일성**주석각하께 뜨거운 경모의 인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김정일**각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지난 5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뜻밖의 서거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체사상신봉자들과 진보적인민의 가슴속에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남긴 커다란 손실이였습니다.

주석각하께서 서거하신후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이 당장 망하기라도한것처럼 소동을 피우며 조선에 대한 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였고 예상치 않았던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적지 않은 사람들이조선에 대하여 비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제국주의서방언론매체들의 끊임없는 악선전속에서도 주석각하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각하께서 계심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은 기필코 승리한다는 굳은확신을 가지고 신념과 의리를 지켜 변함없이 주체사상선전보급사업을벌려왔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행군≫을 벌려온 조선인민과 함께 세계자주화를 위한 한길에 계속 꿋꿋이 서있을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때문입니다.

각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후 지난 5년간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형언할수 없는 난관과 고난이 겹쌓인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완벽하게 실현하시고 세계혁명운동력사에 전무후무한 숭고한 도덕의리의 산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을 전률케 하는 주체적인 선군령도로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시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



엄한 투쟁에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십니다.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지니신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기치를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조선식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나가고있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은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제주체사상토론회

오늘 변화된 국제정세는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세력은 국제무대에서 전횡을 일삼으면서 자주적인 나라들에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고있으며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인민들의 권리를 빼앗으려 하고있습니다.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정세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5돐을 계기로 평양에 온 우리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은 협의회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주체사상보급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일**각하의 령도따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모든 것을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들고 온갖 난관을 강행돌파해나가고 있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주체사상전파를 막아보려는 원쑤들의 책동에 과감히 맞서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의 세련된 령도가 있는 한 머지 않아 조선땅에는 륭성번영하는 통일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지구상에는 자주화된 세계가 도래하게 될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세계 자주화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각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이노우에슈하찌

요르단주체사상연구대표단 단장
무스타파자베르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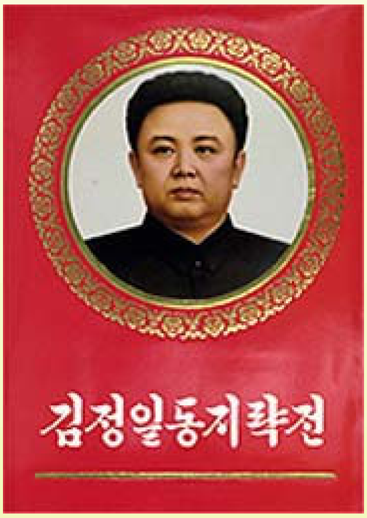
에티오피아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
베우까뜨따쏘우

스리랑카주체사상연구학회대표단 단장
레기에라나툰게

주체88(1999)년 7월 12일
평양

김정일총비서의 5년간 사상리론활동에 언급

로동신문



(평양 주체 88년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

25일부 ≪로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는 지난 5년간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펼치신 절세의 위인이시라고 강조한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당한 민족의 대국상, 혹심한 경제적난관과 련이어 겹쳐드는 자연재해, 여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를 기화로 악랄하게 감행된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반동적사상공세, 이런 역경속에서 기적을 창조하신 령도자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지난 5년간 그이께서 벌려오신 사상리론활동은 선대수령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끝없는 충실성, 우리 조국을 모든분야에 걸쳐 최상의 위력을 지닌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려는 불타는 애국의 일념으로 일관되여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조선로동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사상, 전체 인민이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살며 싸워나갈데 대한 사상, 수령님께서 생전에 주신 모든 교시들을 유훈교시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데 대한 방침 등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사상리론방침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없다.

이에 의해 수령영생위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이 완성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0.001미리메터의 드팀도 없이 순결하게 계승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는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단호한 결심에도 그대로 어려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도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또한 강성대국건설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선군혁명사상과 사회주의경제를 활성화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조선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준마를 타고 구보로 달릴데 대한 사상 등 수많은 사상과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은 또한 인류의 운명, 전반적인 사회주의위업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시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일관되여있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수많은 로작들에서 사회주의운동의 재생과 그 종국적승리의 길을 뚜렷이 명시해주시였다.

론설은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5년간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기와 더불어 길이 빛날 거대한 사상리론적 공적을 이룩하실수 있은것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리론가로서의 천리혜안의 철학적예지와 초인간적인 비상한 정력, 장구한 혁명활동력사와 비상히 풍부한 혁명령도경험에 있다고 강조하고있다.

론설은 우리가 가는 앞길에 시련이 겹쌓이고 있지만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사상리론이 있기에 두려울것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이 조선인민의 신념이고 배짱이라고 지적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리사회회의참가자들이 편지

(평양 주체 89년 4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 참가자들이 17일 편지를 드리였다. 편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각하

세계진보적인류의 공동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체 조국의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회 제15차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우리들은 다함 없는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각하께 이 편지를 삼가 드립니다.

이번 리사회회의는 주체사상연구보급활동으로 20세기를 빛내인 자랑찬 성과들을 긍지 높이 총화하고 희망찬 새 세기를 자주위업의 전면적승리의 세기로 맞이하려는 확고한 결의들이 표명된 매우 의의깊은 회합이였습니다. 회의참가자들은 일치하게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은 주체 조선의 새 력사가 펼쳐 진 민족최대의 경사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새기원을 열어 놓은 20세기의 특기할 력사적사변이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진로를 개척하시고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 세우신 조선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십니다. 아울러 그이는 대륙과 민족의 차이를초월하여 진보적인류를 자애로운 한품에 안아 자주의 새 세계창조에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 인류의 탁월한 수령이십니다.

시대와 력사앞에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이룩할수 없었던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신것으로 하여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세계진보적인민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의 마음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십니다.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위업은 오늘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령도, 풍모에서 **김일성**주석과 꼭 같으신 각하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 하여 주체의 태양은 세계만방에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끊임 없이 심화발전시키시여 진보적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고 계시는것으로 하여 각하께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가로 공인되여 세인의 끝 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 계십니다. 각하의 모든 저서들에 빛발치는 주체의 사상과 리론들은 그대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신념과 의지가 되고 삶과 투쟁의 지침이 되여 자주위업의 앞길에 필승의 기치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번에 귀국에 와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벅찬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라는 각하의 사상리론의 진리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 사회주의만이 세상에서 가장 공고하고 우월하며 활력 있는 참다운 사회주의라는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오늘 세계를 움직이는 현대 정치의 유일한 대표자, 새 세기 인류의 탁월한 수령은 오직 존경하는 **김정일**각하 한분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우리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각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21세기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 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 있습니다.

20세기에 이어 21세기에도 인류가 높이 추켜 들고 나아 가야 할 기치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입니다.

주체사상만이 현 시대뿐아니라 미래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인 혁명학설이며 진보적인류가 나아 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입니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변화된 오늘의 현실에 맞게 세계 여러 대륙과 나라들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활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21세기를 주체의 진리로 빛내여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국땅우에 반드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보냅니다.



≪김정일선집≫ 제14권 출판

(평양 주체 89년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창건 5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대성한 문헌집 ≪**김정일**선집≫ 제14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김정일**선집≫ 제14권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84(1995) 년부터 주체88(1999) 년까지의 기간에 발표하신 론문과 담화, 서한을 비롯한 38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여 있다.

로작들이 발표되던 시기는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상실의 아픔과 전례없이 강화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 거듭되는 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 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엄혹한 시기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시기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쪽잠과 줴기밥으로 낮과 밤을 이으시며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나라의 방방곡곡에 거룩한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을 찍으시였으며 비범한 예지와 천리혜안의 통찰력, 탁월한 지략과 령도로 마침내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준엄한 난국을 뚫고 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혁명실록을 엮어 오시였다.

≪**김정일**선집≫ 제14권에는 이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전투를 승리적으로 이끄시면서 제시하신 혁명과 건설의 전략전술적방침들과 심오한 사상리론들이 폭넓게 담겨 져 있다.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사상리론가

기네인사들의 반향

(평양 주체 90년 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사상리론가로 높이 칭송하고 있는 목소리가 기네의 인사들속에서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다.

기네공화국 정부 수상 라민 씨디메는 존경하는 **김정일**장군각하의 비범한 사상리론은 민족적자주권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한 숭고한 위업실현에 떨쳐 나선 세계 인민들이 틀어 쥐고 나아갈 지도적지침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김정일**장군각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인류의 자주적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성인, 만민의 태양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리사장이며 기네대통령부 국방담당상인 도랑크 아씨파트 디아쎄니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키시여 혁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여 나가시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인의 높이는 곧 사상의 높이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장군은 21세기를 빛내이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라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네전국위원회 위원장이며 령토행정, 지방분권화 및 안전상인 기네통일진보당 행정1비서 무싸 쏠라노는 **김정일**장군각하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고 있는것으로 하여 이 사상은 시대의 지도사상으로서의 력사적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 있게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하였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평양 주체 90년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탐구는 진지하게, 사색은 독창적으로...

이것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사상리론활동의 전 과정에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립장과 자세이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혁명활동의 전 기간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시대성과 독창성, 심오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그 무엇에도 견줄수 없는 기념비적저서들을 수많이 발표하시여 인류의 사상리론발전에 특출한 업적을 쌓아 올리시였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벌써 학계를 놀래우는 수많은 로작들을 집필하시였다.

그중에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1964. 3),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본성에 대하여≫(1962. 1)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준 로작들도 있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주체53(1964)년 6월부터 본격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려 주체83(1994)년 6월까지만도 890여건의 주요 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 3)는 그이의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로작이다. 이 로작에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력사관과 혁명과 건설의 지도원칙, 지도방법이 새롭게 밝혀 져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와서도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 11),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1993. 3)등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복잡하게 얽힌 세계정치정세에서 사회주의재건운동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나선 진보적인류가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론, 수령은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라는 정의에 기초한 수령론,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원리, 문학예술작품의 핵에 관한 종자론 등도 **김정일**령도자께서 쌓으신 사상리론업적의 높이를 보여 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토론회 참가자들이 편지

(평양 주체 90년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드리는 편지가 베네수엘라 까라까스에서 진행된 21세기 제1차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토론회에서 3월 30일 채택되였다.

편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착취 받고 억압 받던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력사의 새 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김정일**각하께서는 주체의 사상과 리론들을 계승발전시키시여 복잡다단하게 제기되는 현 시대의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며 위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강력한 보루를 쌓아 올리시였으며 자주위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 놓으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편지는 **김정일**각하는 실로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인류의 운명을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신 자주위업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향도의 찬란한 태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편지는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평양 주체 90년 6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에 대한 마다가스까르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련합토론회가 2일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마다가스까르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마다가스까르 **김정일**로작연구회 위원장, 마다가스까르 주체적문예사상연구학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사회주의하에서의 사상사업의 원칙과 임무≫, ≪사회주의사상진지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리론≫ 등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조선로동당과 조선혁명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김정일**각하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식사회주의를 빛나게 고수하시고 세계사회주의운동과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위대한 사상가, 령도의 거장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의 로작이야말로 진보적인류의 사회주의재건운동에 불멸의 기여를 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오스트리아, 기네, 뻬루, 인디아에서도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대한 해설모임이 6일과 7일 에짚트와 기네에서 진행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로작 530여건 출판

(평양 주체 90년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후 지난 37년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사상리론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수 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이 기간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가운데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이미 출판한것은 530여건에 달한다.

그이께서 발표하신 로작가운데서 ≪**김정일**선집≫(1권부터 14권)에 수록된 문헌은 300여건이나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2월 19일 시대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시고 그 내용과 특징,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발표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 제시된 ≪2월의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뚜렷이 하고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수행해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백두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저술활동으로 주체56(1967)년 7월 3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에서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상선전을 강화할데 대하여≫와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81(1992)년 7월 22일 ≪인민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를 발표하시고 그 다음날에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밝힌 ≪혁명적원칙과 립장을 철저히 지킬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73(1984)년 2월 16일에 고전적로작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였다.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 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비롯하여 명절날과 기념일에 즈음하여 우리 당건설과 당활동의 지도적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의 사상의도대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해 벌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활동을 증시하는 고전적로작들은 수없이 많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무실에서만이 아니라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수많이 발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선시찰과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민군지휘성원들, 당, 정권기관 책임일군들과 군인들,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각계층 근로자들을 만나시고 담화, 연설, 결론 등으로 투쟁과 생활의 지침을 마련해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37년간의 혁명활동력사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을 반영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발전풍부화하신 위대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빛나는 력사이다.



위대한 사상리론가

(평양 주체 90년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조선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탈선도 없이 자기의 궤도를 따라 힘 있게 전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년간 나라에 조성된 일련의 엄혹한 난관속에서도 그 로정은 달라 지지 않았다.

이것은 불면불휴의 사색과 탐구로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 방법을 발전풍부화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떼여 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던 지난 6년동안에만도 집무실과 전선시찰, 현지지도의 길에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한 수십여건의 고전적로작들을 내놓으시였다.

그중에는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1995. 6),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1997. 6)도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로작들에서 조선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며 빛내이기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과업, 방도들을 밝혀 주시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위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1995. 10), ≪주체철학은 독창적인 혁명철학이다≫(1996. 7), ≪**김일성**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내여 나가자≫(1996. 8)에서 주체사상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과 청년사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더욱 힘 있게 밀고 나가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밝혀 주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발표하신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2000. 1),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1998. 4),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1996. 10)등의 로작들은 경제, 문화, 교육, 도덕, 조국통일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들에 대한 명철한 해답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당이자 군대이고 군대이자 당이라는 주체적인 선군사상리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데 대한 혁명적인생관에 관한 리론 등 **김정일**령도자께서 최근년간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조선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게 한 백전백승의 기치였다.

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평양 주체 90년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 대한 강연회가 18일 네팔주체연구소의 주최로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는 네팔주체연구소 소장 마니크 랄 쉬레스타를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네팔주체연구소 소장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의 전반내용을 해설한 다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고 있던 시기에 이 로작을 발표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매개 나라 민족과 인민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고수하고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는 길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로작은 21세기에도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인민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로작이다.

13일과 16일 우간다에 있는 범아프리카운동서기국과 나이제리아 아부쟈종합대학 주체철학연구소조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범아프리카운동서기국 청년 및 대학생문제 조정관은 토론회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정치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 궤도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것은 조선로동당이 일관하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여 왔기때문이다.

김정일각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존엄 떨치고 조선의 사회주의는 불패의 생활력과 위력을 지니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나이제리아 아부쟈종합대학 주체철학연구소조 위원장은 토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가장 빛나게 구현되여 진정한 민족의 륭성번영이 실현된 나라는 위대한 **김정일**각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2002년 2월에 진행하게 될 주체사상에 관한 세계대회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대회를 맞는 연구소조의 사업방향과 계획이 토의결정되였다.

김정일총비서의 로작을 탐독하여야 한다

미국로동자세계당 서기국 성원 글 발표

(평양 주체 90년 7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

미국로동자세계당 기관지 ≪워커즈 월드≫ 6월 28일부가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도자의 사상, **김정일**동지 사상사업을 강조≫라는 제목밑에 미국로동자세계당 서기국 성원 디어드르 그리스월드가 쓴 글을 실었다.

필자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전쟁을 비롯하여 50여년간에 걸치는 미제국주의의 잔악무도한 군사적적대행위를 물리쳤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도자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유럽의 사회주의의 붕괴와 련이은 자연재해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고수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이렇게 할수 있은 가능성은 어디에 있었는가?

김정일령도자의 로작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가 이에 대해 설명해 준다.

계속하여 필자는 조선식사회주의의 놀라운 생활력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정일**령도자의 이 로작을 탐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로작의 중요한 명제들을 글에 인용하였다.


주
체